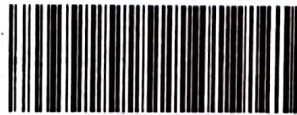


전북 지방의

우물(샘) 이야기

전북도청도서관



EM0000057978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

전북지방의 우물(샘) 이야기

인 쇄__ 2014년 11월 21일

발 행__ 2014년 11월 26일

발행인__ 정 창 환

발행처__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

인쇄처__ 신아출판사(☎ 063-275-4000)

〈비매품〉

차 례

발간사	정창환	4
우물총론		7

제1부

고창	13
군산	73
김제	127
남원	179
무주	285

제2부

부안	353
순창	419
완주	461
익산	513
임실	561

제3부

장수	637
전주	679
정읍	751
진안	813



전주



전주의 우물과 샘

I.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부터 물가에 터를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점차 생활이 복잡해지고 삶의 터전이 내륙이나 평야지대로 옮겨감에 따라 그리고 집단 취락이 형성되면서 자연 그대로에서 음료수를 얻던 방법이 조금 발전하여 음료수를 얻기 위하여 땅을 파서 지하수를 끄는 설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물(土井)이라 하였다. 이런 방식 외에 바위틈 새로 솟거나 흐르는 물을 끄는 석정(石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위를 움푹하게 파서 만든 것과 그 위에 다시 시설을 첨가하여 완성하는 것이 있다. 솟아서 끄는 물이 높은 지대에 있으면 그 물을 아래로 끌어오기 위하여 통나무를 반으로 잘라 가운데 홈을 파서 이것들을 연결하여 아래의 집으로 급수를 하도록 하였다. 주로 사찰 같은 데서 이용하였다. 맨땅을 파서 우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우선 우물을 뚫을 때 주변의 물을 머금은 흙이 무너져내리지 않도록 나무나 돌 등으로 벽을 구성하였다. 돌로 쌓는 경우는 샘물의 출입이 자유스러워야 하고, 한번 집수(集水)된 물이 마르지 않고 잘 저수(貯水)되어야 하며 물이 썩거나 탁해지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했다. 예컨대 돌을 쌓을 때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돌끼리 편안하게 쌓아야 토압(土壓)을 버틸 수 있다. 한편으로는 돌이 물에 닿는 부분은 표면이 거칠면서도 굴글리게 하는 방법으로 다듬어서 물에 자극을 주어 늘 유동하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의 성격을 차분하고, 맑고 깨끗하고 차갑게 하였다.

II.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우물이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져 왔는데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도 나타나고, 공주의 공산산성, 경주의 분황사의 터 등에서 보이고 있다. 그리고 조선 시대 들어와서는 촌락마다 공동 우물을 새로 만들거나 보수, 관리하기 위하여 우물계(契)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계를 정계(井契) 또는 정호계(井戶契)라고 하였다.

실제적으로 1950년대까지만 하여도 마을의 공동 우물이 마을의 규모에 따라 1~2 개 정도가 있어서 '큰샘', '동네샘'이라 불렀고 이러한 우물의 관리 는 마을 공동 관리였다. 그리고 일 년에 한두 번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물을 전부 퍼내는 우물 청소도 하였다.

이러한 우물들은 취락구조가 바뀌고 지금에 와서는 산골이나 농촌 할 것 없이 상수도가 보급되어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물에는 어느 시대이든 역사와 사회상이 남아 있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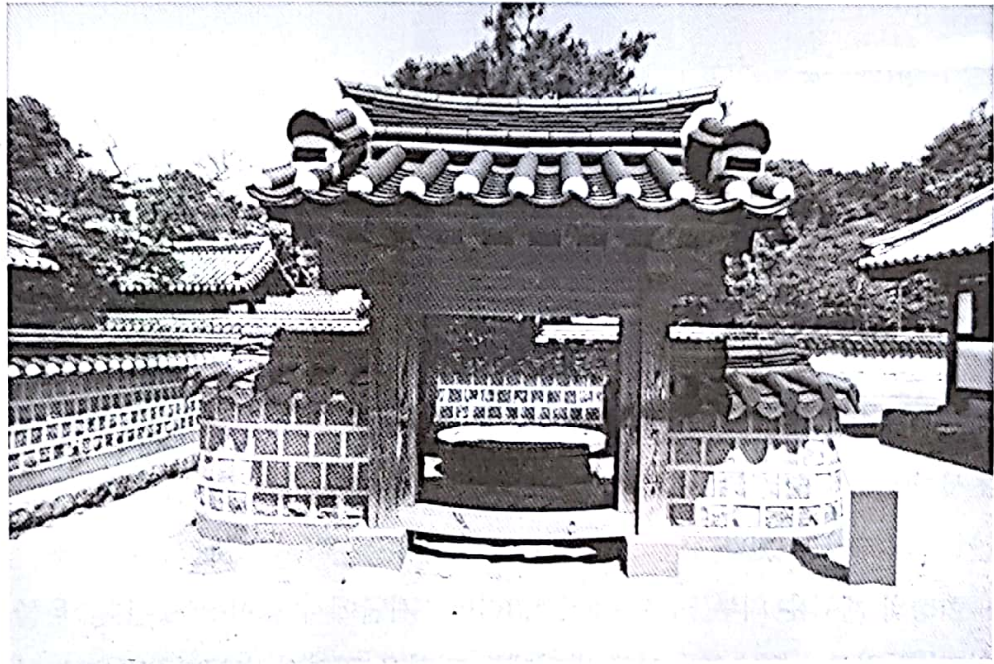
지금 우물 조사를 하는 것은 사라져가는 우물의 흔적을 찾아서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촌락의 변천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작업이다.

경기전 어정(慶基殿 御井)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풍남동 3가 91-5)

【축조시기】 조선시대 【우물성격】 경기전 수복청 내 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42cm, 깊이 150cm, 지름 189cm



경기전은 크게 태조어진을 모시는 정전과 동쪽에 사고가 있으며 서쪽에는 수복청이 있다. 경기전의를 보면 전사청이 서쪽 담장 문 밖에 대량 3칸이 있다. 또 주방 1칸, 조병청(造餅廳) 3칸, 용실(舂室, 방앗간) 2칸이 있었다. 그리고 전사청 남쪽 담장 밖에 동재와 서재 마창이 있고, 동재 옆에 어정(御井)이 있는데 돌로 쌓고 철환(鐵環: 철로 만든 고리)으로 장식된 돌뚜껑을 덮었다. 또 어정은 담장을 두르고 작은 문을 두었다. 『여지승람』에 이르기를 '성 안에 우물이 223개가 있는데 이것이 그중 첫째가는 우물이다.'라고 하였다.

다른 자료인 경기전 부속시설 중건 의궤(전주시, 이왕기, 2005년)를 보면 시설물 중에 어정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일반적으로 어정은 임금 음식을 만들거나 임금이 마실 물을 기르는 우물을 말한다. 그리고 종묘, 사직단 등 임금

이 참여하는 제례에 사용하는 우물도 어정이라고 하였다.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모셨던 경주의 집경전, 평양의 영송전, 전주의 경기전 우물도 어정이라고 하였다. 어정은 깨끗하고 성스럽게 취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위에 담을 두르고 문을 설치해두기도 한다. 이 문을 어정문(御井門) 또는 어정(御井)사주문이라고 한다.

어정이 있는 부분은 일제강점기 때 학교를 세우면서 이 일대의 모든 시설물이 훼손되었다. 지상부에 노출된 어정의 실물은 현존하는 서울 종묘의 우물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어정의 내부 직경은 약 4자 정도였고 외부 직경은 약 6자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수치는 추정치이다. 어정의 상부는 화강석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석재로 뚜껑을 설치해 두었을 가능성도 있다. 우물 주변 바닥은 박석을 깔고 한쪽으로 배수구를 만들어 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전 수복청은 2003년 본격적으로 복원작업을 하면서 어정도 새롭게 조성되었고, 어정 주변에 담을 치고 기와를 올리고 바로 옆에는 소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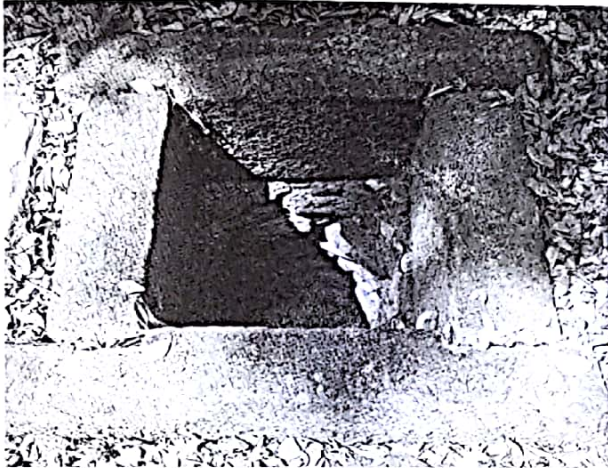
어정의 재원은 외부 직경은 6자(1.8미터), 지반에서 높이 85cm이다. 우물의 바닥 깊이는 약 120cm이고 바닥에는 자갈을 깔았다. 어정 주변은 높이 150cm로 담장을 둘렀다. 담장 지반은 폭 100cm, 두께 20cm로 잡석을 깔고 그 위에 폭 90cm, 두께 20cm로 기초를 친 다음 사고석을 설치했다. 사고석 하단은 높이 1자의 장대석 2장을 맞대어 깔고 그 위에 사고석을 올렸다.

조경묘 어정(肇慶廟 御井)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풍남동 3가 91-5) 조경단 내

【축조시기】 조선시대 【유물성격】 조경단 내 우물(어정)

【형태】 사각형 86*108cm 【규격】 높이 3cm, 깊이 70cm



조경묘(肇慶廟) 어정은 경기전 북쪽에 풍남동 3가 91-3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는 제례 장소이다. 조경묘는 전주이씨의 시조 이한과 시조비 경주김씨의 위패를 봉안한 조선 왕실의 시조 사당으로 영조 47년(1771년) 경기전 뒤에 건립되었는데, 이를 통해 조선 왕실의 뿌리를 공고히 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왕실의 중흥을 꿈꾸었던 영조의 강한 의지로 창건되었다.

조경묘 창건으로 인해 조선 왕조의 기원이 시조까지 올라가게 됨으로써 시조가 살았던 전주가 왕실의 관념적인 고향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향으로 자리할 수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이어 지속적으로 전주이씨의 시조 이한의 묘소가 건지산에 위치하여, 고종 때인 1899년(광무 3) 이한의 못자리라고 전해지는 곳에 조경단을 쌓았다. 고종이 친히 전서체로 '대한조경단비'라고 쓴 비를 세웠다.

조경단 조성은 대한제국 선포 후 황실존숭사업의 일환으로 시조에 관해 전해오는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전환시키고, 이를 통해 시조묘역을 성역화하여 황제권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경단과 조경묘의

‘조경(肇慶)’은 ‘경사스러움이 시작된 곳’이라는 의미로 새 왕조의 건립을 뜻한다.

조경묘경기전도형(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을 보면 조경묘에 대한 자세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조경묘를 주축으로 내삼문과 외삼문이 있고 서쪽 입구에는 하마비와 홍살문이 있고 바로 옆에는 수문장청, 시위청이 있다. 또 동쪽에는 수복청, 재실, 연실(輦室), 제기고, 용실(春室), 전사청이 북쪽에 어정이 있다. 이 어정은 출입문이 남쪽으로 되어 있으며 담을 사각으로 둘렀고 그 안에 우물이 있다. 조경단 어정은 사각형으로 된 돌을 둘렀으며 이때 사용한 돌의 규격은 18*34*34(높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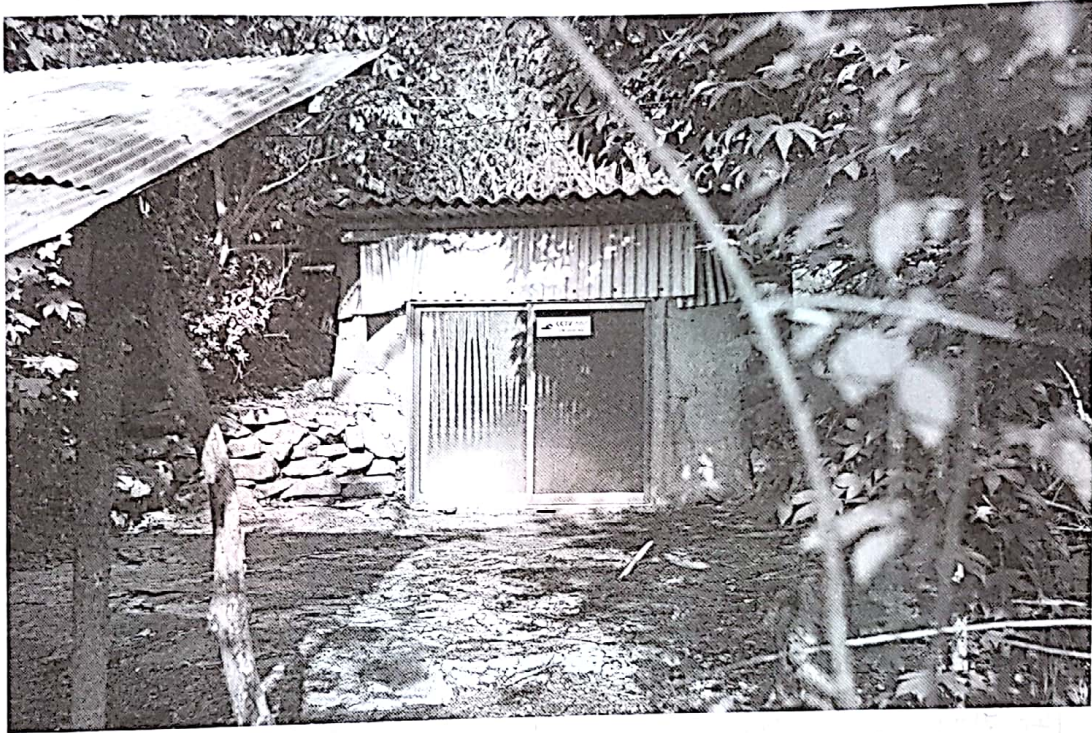
조경단 어정은 황녀 이문용(1900-1987)이 10년간 사용한 우물이다. 황녀는 고종황제와 상궁 염씨(염진숙)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916년 독립운동가 김희진과 혼인했으나 남편과 아들을 연달아 잃었다. 이후 그는 1960년 2월에는 시동생과 시고모를 만나자 국가보안법으로 10년을 전주교도소에서 살았다. 즉 감옥에서 12년간 복역을 마치고 나오자 전주이씨 종친회의 배려로 전주 경기전 뒤 조경묘 별채에 1975년 봄에 이사와 1987년 3월 28일 88세를 일기로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 황녀 이문용은 이곳에 살면서 조경묘 어정을 사용하였다.

성황사(城隍祠)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낙수정 2길 103-208(성황사)

【축조시기】 후백제시대 추정 【우물성격】 동고산성 내 집수시설

【형태】 사각형 【규격】 깊이 155cm, 가로 77cm, 세로 75cm, 둘레 cm



견훤(867~936)이 892년 세운 후백제는 역사가 짧은 왕조였다. 한때 신라 경주를 점령할 정도로 위세를 떨쳤으나, 결국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936년 멸망할 때까지 45년 동안 존속하지 못했다. 수도였던 전주가 도성으로 기능한 기간도 37년뿐이다.

일제강점기만 해도 견훤 왕궁 터는 현 전주시청 동쪽인 물왕말 일대로 추정해왔다. 1940년대 일본이 이 지역 역사를 정리한 『전주부사(全州府史)』엔 당시 건축자재로 추정되는 막새나 석물을 수집했다고 기록돼 있다. 학자들은 이를 후백제 왕궁의 유구(옛 건축물 흔적)라 봤다. 하지만 후백제 시기 세웠다고 다 왕궁은 아니며, 이 일대가 흙으로 쌓은 토성이라 왕실 권위에 적합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1980, 90년대에는 고 전영래(金榮來) 원광대 교수가 주창한 '동고산성설'

이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당시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산성 발굴조사를 이끌었던 전 교수가 1980년 '전주성(全州城)'이라 새겨진 연꽃무늬 막새를 찾았는데, 이것이 후백제 유물로 밝혀지며 단박에 급부상했다. 1990~92년에는 산성 중심부에서 길이 84.2m, 폭 14.1m의 초대형 건물 터까지 드러났다. 게다가 숙종 14년(1688년) 성황사(城隍祠)란 절을 옮기며 쓴 『성황사중창기』에 '이곳이 세간에서 말하는 견훤의 옛 궁성지'란 대목도 나와 더욱 힘이 실렸다.

근래엔 동고산성을 주 왕궁보단 피난성(避難城)으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실제로 왕궁으로 보기엔 산성이 너무 바위산 꼭대기에 위치했다. 게다가 겨울철을 보낼 온돌이나 음식을 해먹을 부뚜막 터가 없고, 일상생활용 유물도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진정환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는 "견훤 왕조가 평상시엔 평지 왕궁에 머물다 위급할 때 동고산성으로 이동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동고산성 입구 표지판에 집수시설이 2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성황사 자리를 의미하고 하나는 반월성이 있는 곳에서 작은 고개를 넘어가면 바로 위치하고 있다. 성황사 우물은 주로 성황사와 반월성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식수였고, 산 너머 집수시설은 남쪽에 사는 병사들이 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우물은 성황사 건물 안에 있으며 작은 호스를 통하여 담 밖 우물로 연결되어 있다. 이곳은 찾는 사람들이 지나다가 음용을 할 수 있다. 바로 성황사 우물은 전주 노송천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 이 물은 국군묘지와 청수정을 거쳐 전주시청 그리고 전주문화원 앞을 지나 모래내와 합류하여 추천대로 흘러간다.

학인당(學忍堂)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45

【축조시기】 조선후기 【우물성격】 개인우물

【형태】 계단으로 사선형 【규격】 높이 320cm, 깊이 570cm, 지름 350cm



조선 고종 때 승훈랑 영릉참봉에 제수된 인재(忍齋) 백낙중(白樂中)의 옛 집으로, 전주한옥마을 내에 있다. 조선말의 한국 전통건축기술을 전승받아 지은 당시의 상류층 주택으로, 조선왕조 붕괴 후 궁중 건축양식을 민간주택에 도입한 전형적인 예이다.

학인당(學忍堂)이란 당호는 백낙중의 장자 백남赫(白南赫 : 1905~1981)이 부친을 기리어 후손들에게 선대의 후덕함과 효심을 배우라는 의미에서 백낙중의 호 인재(忍齋)의 가운데 글자인 인(忍)자를 넣어 학인당(學忍堂)이라 명명하였다 한다.

백낙중의 가문은 뛰어난 효자 가문으로, 조부인 백방진(白邦鎭)과 부친 백진수(白晉洙), 그리고 백낙중으로 이어지는, 삼대에 걸쳐서 관직이 제수되고 정려(旌閭)가 내려진 효(孝)의 집안이다.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이들을

기리는 효자문이 세워져 있고, 학인당의 솟을대문에는 당시의 명필 김돈희(金敦熙)가 쓴 白樂中之閣(백낙중지려) 정려현판이 걸려 있다.

학인당은 본채와 부속건물, 연못과 정원, 우물 등으로 배치하여 별장형식에 살림집을 가미한 복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채 건물은 전면 8칸, 측면 7칸의 총 28칸에, 건평 67평(196.02㎡)이며, 팔작지붕에 7량 가구 좌퇴고패집(ㄱ자집)으로, 지붕의 정면에 돌출시킨 박공면에 창을 부설하여 다락의 채광과 환기를 도모한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추녀와 사래 끝에는 동판(銅板)으로 싸서 풍우를 막게 하였다. 기단은 3단의 장대석을 놓고, 그 위에 고북형 초석(호박주초)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보는 3개로 길이 16척, 폭 1척1치, 높이 1척7치이고, 창방, 장혀, 도리, 부연 등의 전통한옥 구조형태가 잘 나타난 건물이다. 마루와 대청뒤통마루는 우물마루로 설치하고, 방의 창호는 덧문(여닫이), 창호지문, 갑창(미닫이)의 삼중구조이다. 대청과 큰방은 팔분합들문(여닫이)과 팔분합창호지문(미닫이)을 설치하여, 마루와 공간을 구분시켜 평상시에는 접객장소로 사용하고, 행사(연회)시에는 문턱을 떼어 내어 넓은 공간을 만들어 공연장(판소리, 국악공연) 등으로 썼다.

당시 일류 도편수(都片手)와 목공 등 연인원 4,280명이 동원되었으며, 압록강과 오대산 등지의 목재를 사용하여 2년 6개월에 걸쳐 건축하였다. 백미(白米) 4,000석이 투입되었다 한다. 총건평 69평(솟을대문 9평)의 전형적인 고가 풍 건물로, 효산(曉山)이광열(李光烈)의 휘호로 된 현판을 걸었다.

건축 당시에는 대지 2,000여 평에 99칸의 대저택이었으나, 현재는 520평 남짓한 대지에 안채와 뒤채, 별채, 사랑채 등 7채의 건물만 남아 있다. 건축당시 우물이었던 자리에 돌을 쌓아 만든 땅샘이 있는데, 정원의 돌계단 16칸을 내려가게 만들었으며, 한여름에도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 냉장고 대용으로 쓰였다.

조사를 할 당시 물의 수심이 1미터가 넘었으며 항상 사실사철 이 정도는 유지를 한다고 주인은 말을 하였다. 여름에 더 쓸모가 많은데 항아리에 김치를 넣어 우물에 보관했다 먹으면, 새콤한 맛이 천하일품이었다고 한다. 계단의 길이를 약 420cm이며 들어가는 입구는 대리석이 돌이 깔아져 있으며, 주변에는 석함, 작은 연못과 주변에 소나무, 향나무, 어성초, 수련, 창포 등이 있다. 금붕어는 작은 연못에서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다.

미륵당(彌勒堂)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불 3길 19

【축조시기】 근현대 【우물성격】 미륵당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35cm, 깊이 490cm(수심 290cm), 지름 70cm



서서학동 미륵당석불입상은 석가여래의 서 있는 모습이다. 오랫동안 머리 부분을 제외한 몸체가 땅에 묻혀 있었으나, 1970년대에 파내어, 1980년에 건립한 미륵암의 미륵당 안에 모셨다. 이불상은 그 본 모습을 상당부분 잃었는데, 코와 손은 근래 새로 만들어 붙인 것이다. 두 어깨를 모두 가린 옷차림(통견)으로, 옷 주름은 양어깨에서 가슴과 두 팔에 곡선으로 흘러내려 다리까지 이어졌으며, 옷소매는 길게 드리워져 있다. 이 불상은 제작기법과연꽃 무늬를 새긴 받침대 양식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시기가 앞선 것으로 보인다.

미륵당 안에는 짚 속에 우물이 있어 두레박을 사용하여 물을 퍼내고 있다. 현재는 미륵당이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이며, 미륵당에 미륵입상만 홀로 서있는 상태이다.

석불리(石佛里)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불 3길 30-1번지 아래

【축조시기】 근현대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70cm, 깊이 440cm, 지름 110cm



석불리 우물은 미륵당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우물로 1950년대에는 7가구가 사용했다. 이 물의 특징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수증기가 많이 나와 흙통을 만들어 놓았다고 동네분들이 얘기를 한다. 물이 좋아 남초등학교에서 떠났으나 지금은 정수기를 놓았다고 한다.

낙수정(樂壽亭)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낙수정 2길 64-5

【축조시기】 조선후기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70cm, 깊이 330cm, 지름 130cm



낙수정은 조선 시대 전주부 부남면 지역으로 이곳에 향교가 있어 교동이라 불렀다. 자만동 뒷산을 발이산이라 부르고 바로 옆에는 옥류동이 위치하고 있다. 최담유허비에서 옥류동 옥동사(금재 최병삼)를 지나 무애사 옆 고개를 넘어가면 낙수정에 다다른다. 낙수정은 교동의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예전에는 정자가 있었던 지역이다. 현재는 이곳

에 국군묘지가 있어 많은 참배객이 찾아온다.

낙수정 우물은 낙수정 터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랫동네 교동아파트 부근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물을 먹었다 한다. 사실 물이 많이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는 관계로 이른 아침에 물을 길어가야 밥을 지을 수 있었다. 동네 아낙들은 만약 늦게 일어나 물을 길어가면 물이 없기 때문에 새들처럼 일찍 일어나 물동이를 지고 가야만 했다.

이곳은 지형이 좀 움푹 들어가 있어 물이 모이기 좋은 지역이다. 우물을 둘러다보면 2겹의 콘크리트 흡관을 설치했으며 바닥이 흰히 보인다. 가장 밑 부분의 바위 사이에서 물이 새어 나오며 지금도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자랑한다.

낙수정 우물은 바로 옆집에서 펌프를 묻어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잡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스텐 뚜껑을 설치했다. 예전에는 빨래터가 있었으며 주변에는 화분을 잘 가꾸고 있다.

낙수정에는 웃동네 사람들만 사용하는 윗시암이 있다. 위치는 군경묘지 남쪽 지역으로 교동 1005-13이다. 윗시암은 바로 옆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으며 담을 둘렀고, 콘크리트 흡관 높이는 70cm, 깊이 210cm, 지름 90cm이다.

남고산성(南固山城) 박적시암과 대숲시암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고산성 1길 56-1(동서학동 1062)

【축조시기】 조선시대 【유물성격】 공동샘

【형태】 사각형 샘 【규격】 높이 30cm, 깊이 150cm



남고산성 기록을 보면 후백제왕 견훤이 전주의 방어를 위해 동고산성, 서고산성과 함께 쌓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남고산성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볼 때 남쪽에 우뚝 솟아 있는 산인데, 조선 시대는 왜적이 남원을 통하여 전주부성에 올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남고산성은 고덕산 자락에 천혜지형을 이용하여 계곡을 이용한 포곡형 산성을 구축하였고, 조선 시대에는 남고진을 두어 별장이 통치하던 곳이다. 이곳에는 험준한 바위 맥이 지나가는 천경대, 만경대, 억정대가 있으며, 특히 만경대에는 포은 정몽주와 관찰사 이서구의 우국충정을 담은 시가 바위에 적혀 있다.

산성 내에는 별장이 근무한 병영 터가 있으며 많은 관찰사와 별장들의 공적비가 서암문지와 서문지 주변에 많이 있다. 또 완산팔경 중 하나인 남고사가 잘 보존되고 있으며, 관우 장군을 모시는 관성묘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서암문지 주변에는 삼정사를 비롯하여 화백 이응노의 묘소가 있어 미술사연구의 자료가 되고 있다.

남고산성 일부는 새로 보수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 산성의 윤곽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이 전학코스로 찾고 있다. 이곳에 오르면 전주부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으며, 남원에서 오는 적들의 동태와 동고산성과 마주하고 있어 작전하기에 아주 용이(容易)한 곳이다.

서문지 주변에 최영일이 짓고 창암 이삼만이 쓴 남고진사적비가 있다. 비문 기록을 보면 조선 시대 전주부성을 지키기 위하여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전주방어의 요충지로 활용했다는 내용이 있다. 즉 이 산성은 1811년에 이상황의 획책으로 수축공사가 시작되어, 이듬해 박윤수의 감독으로 완축되었다는 내용이다.

남고산성은 상관의 만마관과 함께 전주를 지켜내는 방어진지로 보면 합당할 것이고, 전주팔경의 하나인 남고사 그리고 석지 채용신의 삼국연의도가 있는 관성묘, 서암문지 공적비 등은 전주를 지켜낸 우국충정의 답사코스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이 산성은 약무호남(若無湖南)이면 시무국가(是無國家)의 중심선상에서 충경공 이정난의 사당이 있는 곳이다. 남고진별장이 근무하는 곳은 폐허로 변했으며 지금은 대숲으로 둘러쳐졌다. 즉 관성묘 못가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곳 밑에는 별장비석이 있고 조금 오르면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일명 박적시암(남고산성샘)이 있다.

박적시암은 바가지로 물을 뜰 수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바로 산 쪽으로 큰 서나무가 자라고 있다. 바로 옆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촛불을 켜는 작은 박스집을 만들어 놓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촛불이 3개 타고 있었다.

기도하는 분들이 이 나무와 이 우물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혹 음식물이나 다른 잡스런 것을 버리지 말라는 문구가 써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왕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옆으로 작은 냇가가 흐르고 있어 수량이 풍부하며 물을 깨끗한 편이다. 예전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박적시암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박 농사를 지어야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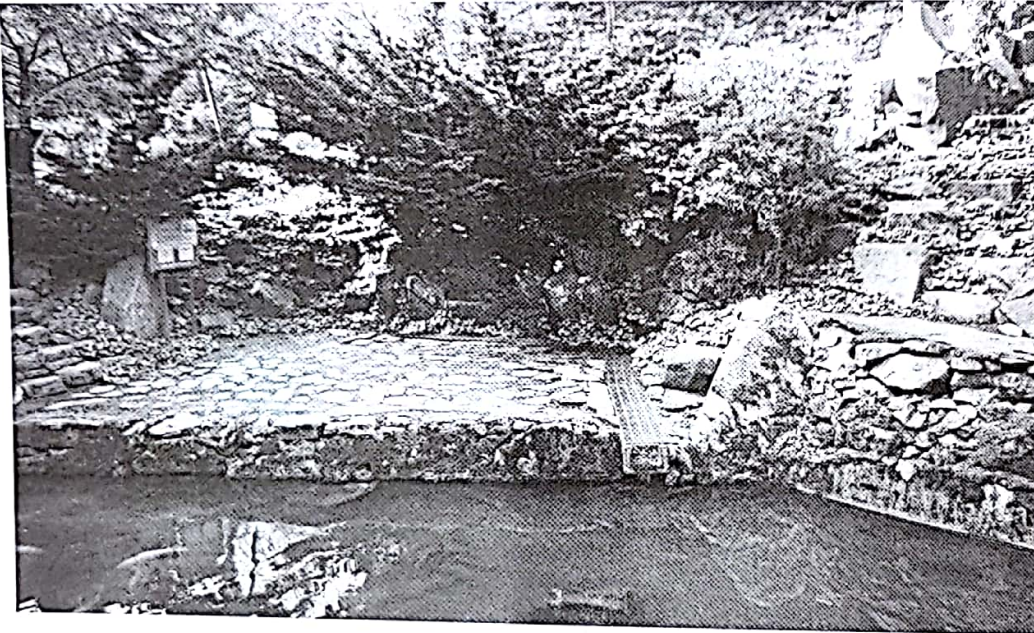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두름박(두레박)시암은 전주시 완산구 남고산성 1길 143-13(동서학동 717)에 있어 찾아갔는데, 얼마 전에 우물을 묻었다고 집주인이 전한다. 집주인이 말하기를 우물의 깊이는 3자 정도였으며 우물 바닥은 암반이 있어 더 이상을 깊이 파들어 갈 수 없었다고 하였다. 두름박시암이 있었던 바로 밑에는 민가(동서학동 709번지)가 많았다. 주로 이들은 한지를 만들며 파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폐허가 되고 우물만 남았다. 대나무 숲 속에 돛자리가 덩어리 있어 걷어보니, 형태는 사각형(120*80cm)으로, 지상부 높이 10cm, 깊이 130cm, 수심 80cm였다. 여기서도 대숲시암으로 부르고자 한다. 시암 속을 들여다보니 대나무 뿌리가 보이며 물이 깨끗하여 청량수 같았다.

삼경사 약수(三景寺 藥水)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고산성 1길 118(동서학동 산 161-1)

【축조시기】 조선시대 【우물성격】 약수 우물

【형태】 약수터 【규격】 수도관 2개 설치



삼경사의 정확한 창건연대와 역사는 기록이 없으나, 규모가 소박하며 대웅전, 범종각 그리고 요사로 구성되어 있다. 삼경사(三景寺)란 이름은 초대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송광사 효봉 스님(1888~1966)이 지었다 한다. 스님께서 이곳에 와보니 ‘물, 공기 그리고 숲’이 좋아서 삼경사라 했다고 전한다. 삼경사 대웅전은 1991년 도우 스님이 지으신 것으로 숲 속 좁은 터에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다.

삼경사 약수는 절 들어가는 입구에 있으며 약수터 수질검사 안내판이 있다. 완산구청에서 수질검사를 하여 불합격일 때는 마시지 못하게 한다. 바로 앞에는 사각형 연못이 있어 비단잉어들 안식처이다. 또 이곳에는 화백 묵로 이용우 묘소 안내판이 있는데, 이곳에서 산비탈을 약간 올라가면 산등성에 작춘 조병희가 찬하고 강암 송성용이 쓴 비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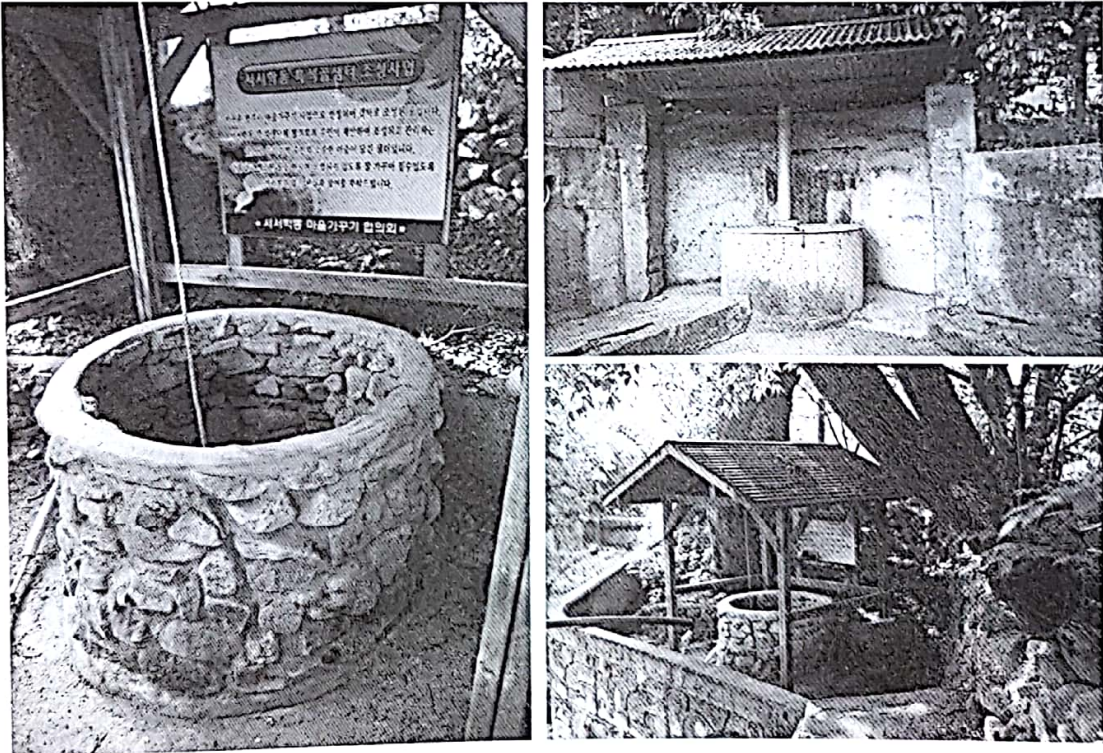
이른 새벽이면 삼경사의 물을 마시기 위하여 일찍 물통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다고 스님은 전한다.

흑석골(黑石洞)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98-8

【축조시기】 조선시대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70cm, 깊이 234cm, 지름 133cm, 수심 16cm



흑석골 우물은 흑석골 종점 버스정류장에서 구이 보광재 가는 초입에 위치해 있다. 흑석동은 장승배기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물이 좋아 예전에는 한지 공장이 많았다. 지금도 전통한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

흑석골은 산과 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이 숲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송원, 대승푸른맨션, 대아청산, 효성흑석마을, 우정아파트가 위치해 있다.

흑석골 우물은 주변의 사람들이 애용했고 특히 보광재를 넘을 때 여기서 물을 축이고 갔다고 한다. 우물 바로 옆에는 흉고가 3미터가 넘는 팽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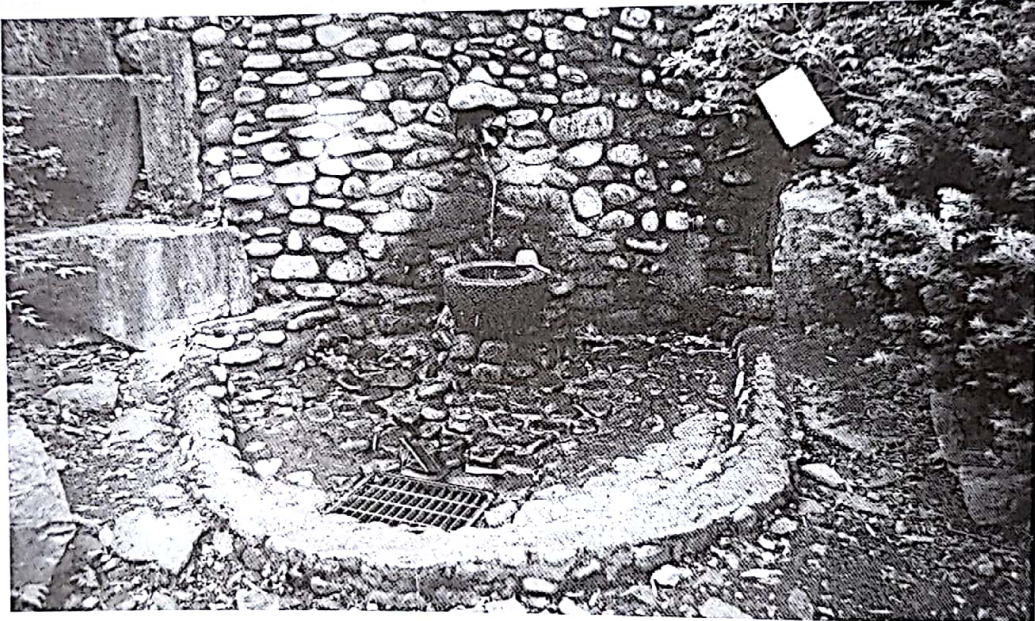
서서학동 흑석골 우물은 전주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서학동 마을가꾸기 협의회에서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움막을 지었으며 우물 둘레도 자연석으로 둥그렇게 쌓았다. 주변은 돌담으로 치저 있으며 바로 옆에는 물이 항상 흐르는 하천이 있다. 움막은 4개의 기둥을 세우고 맞배지붕으로 판자를 올렸으며, 지붕 가운데에 두레박을 매달아 물을 퍼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동고사 약수(東固寺 藥水)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고산성 1길 118(동서학동 산 161-1)

【축조시기】 조선시대 【우물성격】 경기전 수복청 내 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42cm, 깊이 150cm, 지름 189cm



동고사는 신라 헌강왕 2년(876)에 도선 스님이 창건했으며, 전주의 동쪽에 위치한다 해서 동고사라 칭했다 한다. 동고사 바로 뒤에는 견훤이 만든 산성과 반월성이 위치해 있으며, 바로 밑에는 승암 마을이 있다.

동고사는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조선 헌종 10년(1844)에 허주(虛舟) 스님이 중창하고, 그 후 영담 스님이 1946년 대웅전을 새로 지어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경순왕의 둘째 왕자인 범공(梵空)이란 스님이 나라 잃은 설움을 달래고자 이곳으로 도를 닦으려 왔다고 전해온다.

동고사는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 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주를 지키는 후백제의 4고 사찰 중의 하나에 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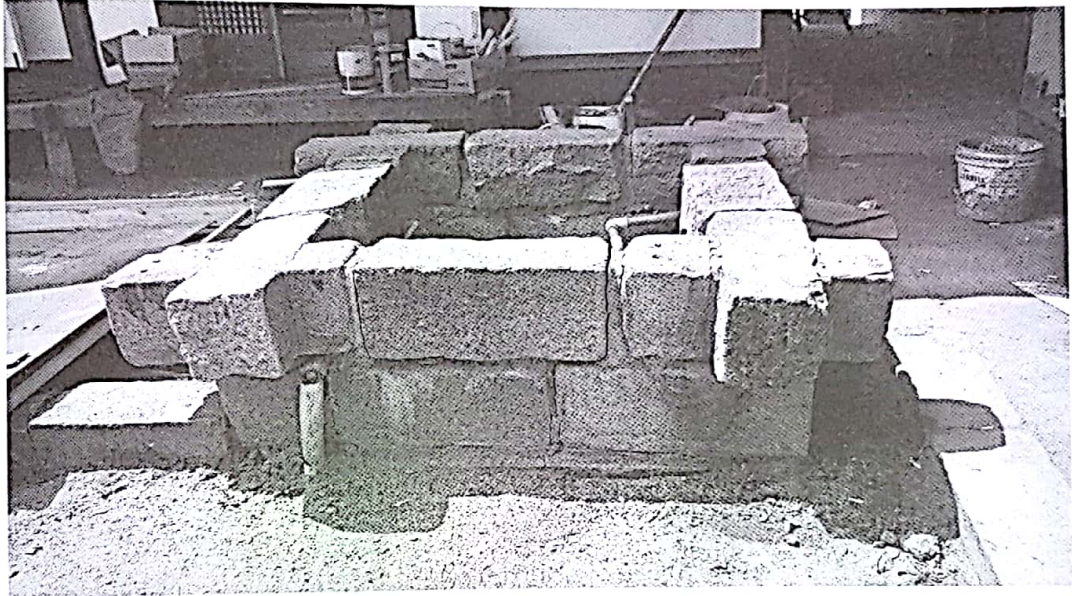
동고사 약수는 돌로 벽을 쌓았고 물이 떨어지는 곳에는 학독을 놓아 운치를 더했다. 주변에는 돌탑이 있고 저 멀리 동고사 건물과 미륵불이 보인다. 물이 좋다는 소문이 있어 승용차를 몰고 이곳까지 와서 물을 갖다 먹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다문(茶門)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74-8

【축조시기】 일제강점기 【우물성격】 개인우물

【형태】 사각형 【규격】 높이 50cm, 깊이 560cm, 규격 192*182cm, 판석두께 24*24cm



다문은 원래 건물 소유주는 천주교 대전교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 이곳에서는 수녀님들이 약 20년 동안 거주했다고 전해진다.

다문은 전통찻집으로 시작했다가 단골들의 권유에 한식을 시작했고 지금은 다시 전통차만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집을 수리하는 중이다. 현재 집 소유주는 박시도 술박물관장이며 한옥으로 깔끔하게 정돈하고 있었다.

다문 서쪽에는 전통우물이 있는데 판석으로 된 돌을 얹어 우물 정자가 확연히 나타난다. 속을 보니 원으로 되어 있으며 깊이가 무려 560cm나 된다. 지금도 식수로만 사용하지 않지만 손님들이 와서 손을 씻고 설거지를 하는 용도로 모터를 사용 물을 뽑아 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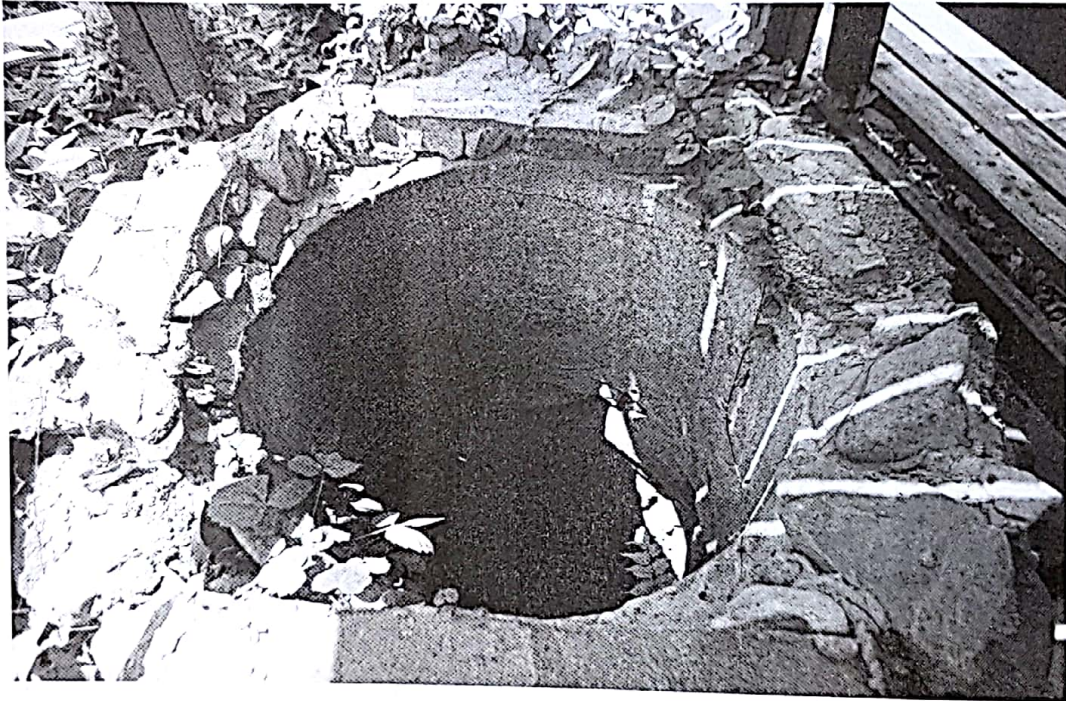
주인장의 말에 의하면 기묘년인 1939년에 집을 건립했다고 말하고 있어 우물도 그때 만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다호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12-3(풍남동 3가 59-1)

【축조시기】 일제시대 【우물성격】 개인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50cm, 깊이 710cm, 지름 70cm



다호 우물은 공예품전시관 맞은편인 교동한식 골목으로 들어가면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소리나는 한옥문을 밀치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집의 역사를 기록한 안내판이 있다. 이 집은 1937년에 건축된 한옥집인 건물의 명칭을 다호라고 하였다. 다호는 예전에 현재 사장님의 아버지께서 살면서 하숙생을 받았던 곳이라고 한다.

이 집에서 하숙했던 제자 중 14명이 서울대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오목대의 서기가 모인 곳임을 실감할 수 있다.

현재 전통찻집 '다호'는 3일 동안 정성스럽게 달여서 나오는 삼싸름한 쌍화탕과 대추죽에 가까울 정도로 진한 대추차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소리풍경(風景)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12-5

【축조시기】 일제강점기 【우물성격】 개인우물

【형태】 사각형(120*120cm) 【규격】 높이 80cm, 깊이 720cm, 사각형120*120cm



소리풍경 우물은 교동한식 골목인 태조로 12-5에 있다. 이곳은 남쪽에 오목대가 있고 바로 옆에는 박금숙 닻종이 인형이 있고 바로 앞집은 쌍화탕 전문점인 다호가 있다.

소리풍경은 현재 한옥집으로 가정집 민박을 실시하며, 숙박하는 고객에게만 내부를 공개하고 있다. 마당 서쪽에는 우물을 아름답게 가꾸었고 잡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리뚜껑을 얹었다. 바로 우물 옆에는 작두시암이 있어 예전에는 두레박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의 힘을 빌려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리풍경은 주변이 잘 정돈되어 있어 한옥과 잘 어우러져 깨끗이 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주감영(全州監營)터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감영로 42-1

【축조시기】 조선시대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0cm, 깊이 550cm, 덮개 80*80cm



원래 우물은 조선 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돌이 원형으로 아름답게 축조되어 있다. 돌은 주로 전주 주변의 자갈돌을 사용했으며 크기는 일반적으로 20-25cm가량의 돌을 사용하였다.

이 우물은 물맛이 좋고 수량이 풍부하여 많은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군인들 약 300명가량이 먹기도 하였다 한다.

일제의 전주 침탈과 식민시대 구술실록(1907~1945: 장명수 집필)을 보면, 전주에 1871년 주살(화살의 일종)로 무장한 군인들이 난후청(欄后廳: 예비군)에 300명이 주둔하였다. 1882년 진남영에서 1889년에는 무남영에서 300명의 군인들이 주둔하였고, 이후 1895년에는 신식군대 600명이 주둔한 진위영 등으로 변화되어 갔다고 한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우물을 기점으로 서북 방향으로 약 20미터 떨어진 곳

의 건물을 뜯으면서 한지에 써진 무남영이건상량문(武南營移建上樑文)이 나왔다.

무남영이건상량문(武南營移建上樑文)은 성상 32년 을미년(1895)에 진안 사인(士人) 긍농 박준필이 기록하고 전주사인(士人) 김병수가 근서했다. 내용을 보면 '문치(文治)에는 반드시 무가 갖추어져야 하고 이는 옛날 규칙을 국가가 잘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무진년에 안찰사 서상정의 치적과 위무사 이호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또 이 우물에서 볼 때 동쪽 발산에는 아름다운 나무가 울창하고, 서쪽 황학대에는 봄풀이 무성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의 기록으로 볼 때 이 우물은 무남영의 우물로 볼 수 있으며, 혹 많은 군인들이 먹기 위하여 정교하게 돌로 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도 수량이 많고 우물이 깨끗하여 보존가치가 있다 하겠다. 현재는 터를 닦으면서 윗부분이 없어진 상태이지만 예전에는 사각형의 돌로 규모 있게 만들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바로 옆에 전라감영 커피숍이 있고 정원이 잘 정돈되어 있어 우물이 복원되어 많은 사람이 이 우물을 보기 위해 찾는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

덕천사(德泉寺) 큰시암 작은시암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군자길 152 덕천사

【축조시기】 일제강점기 【우물성격】 사찰샘

【형태】 원형 및 사각(2기)

【규격】 큰시암 지상부 높이 55cm, 가로 255cm, 세로 275cm

작은시암 지상부 높이 5cm, 지름 약70cm, 수심 30cm



덕천사 큰시암



덕천사 작은시암

덕천사는 평화동 전주교도소와 문정초등학교를 지나면 바로 좌측에 신기 마을과 덕천사 들어가는 표지판이 나온다. 신기 마을에서 약 1.3km 떨어진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금성산 아래 독정마을 위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덕천이란 우물이 바위 틈에서 새어 나왔는데, 수용재를 거쳐 평촌으로 넘어가는 많은 나무꾼들이 이 물을 먹고 다녔다. 전하는 얘기로는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찾았는데, 한번은 산신령이 문둥병 환자에게 나타나 이 물을 먹고 나으면 이곳을 잘 관리하라고 했다 한다. 그래서 그 환자가 샘을 정비하고 물길을 잘 돌렸던 것이다.

이 샘은 겨울에는 김이 나고 여름에는 시원하여 김치를 담아 두면 굉장히 맛이 있었다 한다. 지금도 절에서는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가 필요치 않다. 예전에는 대나무 통을 대어 사용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 너무 함부로 하는 통에 지금은 대리석으로 샘을 만들어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덕천사는 1880년경 비구니 김도천 스님이 덕천이란 샘물이 있어 이곳에 암자를 지어 창건하였다. 이 덕천(德泉)은 영천수로 불리는 약수로서, 예부터 많은 환자들이 이 물을 먹고 효험을 받았다 한다. 특히 나환자들이 모여 들었고 피부병 환자들이 다투어 모이자 도천 스님이 절을 지었던 것이다.

이후 1972년 새로 부임한 비구니 선행(善行) 스님이 보살도를 행하자 인근의 신도들이 많이 모여 중창불사를 하였다. 지금은 대웅전(목조와가)과 칠성각(목조와가), 요사(양옥식) 등이 있다. 칠성각은 재미있는 얘기가 전한다. 6·25지나 예전 스님이 칠성각을 문정리 이화성 씨에게 팔았다. 그래서 인부들이 칠성각을 뜯으려고 손을 대는 순간 머리에 번개가 쳐 집을 뜯지도 못 하고 터를 댔었던 다른 집도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평촌 전의이씨 재실로 모두 팔아버렸다는 일화가 전한다.

덕천 주변에는 뱃나무, 은행나무, 서나무 등이 자라고 있으며, 바로 개울가에는 빨래터가 자리하고 있다. 스님은 지금도 덕천 물이 좋으라고 새만금, 고창 인천강, 구례 섬진강, 지리산 등에 가서 용왕제를 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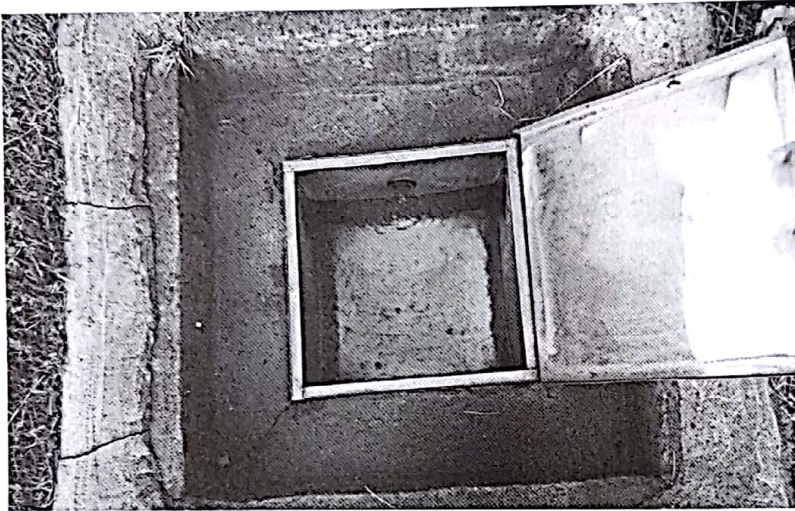
덕천사에는 작은시암이 있는데 이곳에서 나는 돌로 주변을 둘러으며 길이는 약 한 자 정도 되지만 물이 깨끗하여 먹을 수 있다. 이곳은 샘을 모두 잘 관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덕천사 다웠다. 대부분 다른 우물과 샘들은 모두 죽은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이곳 덕천사의 샘물은 모두 살아서 움직이고 해맑은 맛을 선사했다.

학소암(鶴巢庵)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 7길 49-67

【축조시기】 조선시대 【우물성격】 사찰우물

【형태】 사각형 【규격】 높이 0cm, 깊이 70cm, 넓이 120*120cm(스텐)



학소암 찾아가는 길은 평화동 왕버들나무를 지나 평화동 송정씨미트@106동 좌측 산길로 올라가면 된다. 학소암은 고덕산 줄기인 학산 서쪽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데, 경내에는 자음전과 극락전, 산왕각, 요사 등이 있다. 이 절은 1786년(정조 10)에 광혜 스님이 창건했으며, 춘곡화상과 이만선 씨에 의해 중수되었다.

학소암이란 이름은 이 암자가 자리 잡고 있는 고덕산 서쪽 산기슭이 마치 학이 등지를 틀고 있는 형국이라 해서 붙여진 것이다. 학소암 경내의 자음전은 19세기 중엽 이후에 중건된 것으로 주존은 목조여래좌상과 그 좌우에 석조 협시보살입상이 안치되어 있으며 6점의 탕화가 있다.

자음전 마당에는 작은 우물이 있는데 물통이 스텐으로 되어 있어, 여기서 집수를 한 다음 마당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물이 깨끗하고 맛이 좋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학소암 편액은 갑술년(1934)에 효산 이광열이 행초로 썼는데 운치가 있고 건물과 잘 어울린다. 학소암 자음전도 뒤에 있는 노송과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자아낸다. 효산은 전주의 근교인 승암사, 천양정, 기령당 송석정 편액 등을 남겼다.

문정리(文亭里) 큰시암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문정길 31-3

【축조시기】 조선후기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사각형 【규격】 높이 60cm, 깊이 240cm, 지름 230cm



문정리는 전주교도소 앞에 있는 마을로 꽃밭정이를 거쳐 순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마을 서쪽에 신생어린이집이 있으며 바로 옆에는 마을 당산나무가 있는 곳이다. 주로 당산나무 주변에 집들이 운집해 있다.

문정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는 큰시암이 당산나무 부근에 있다. 이 시암은 큰시암이라 불렸으며 여기서 물을 길어다 밥을 해먹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이 큰시암이면 작은 시암이 있을 것 아니냐고 물어보니 그 것은 모른다고 한다. 아마도 다른 곳에 작은 시암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은 우물들이 위험요소가 있어 거의 메우거나 투정을 해 놓은 상태라 찾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오래된 뽕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시암 뒤에 있는 집을 큰시암집이라 부른다.

한절리(寒節里)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67-57

【축조시기】 근현대 【우물성격】 개인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30cm, 깊이 380cm, 지름 72cm



한절리 우물은 한절 마을을 통과해서 송림꽃무지풀무지어린이집을 지나 한절길 67-54의 깊은 계곡에 있다. 이 집은 사람이 살지 않고 있으며 마당에도 곡식을 심어 사용하고 있다. 산 쪽으로 깊은 우물이 있는데 물의 양이 많아 무려 220cm가 고였다. 우물은 흥관 2개를 포개었고 바로 밑에는 자갈을 사용해서 원으로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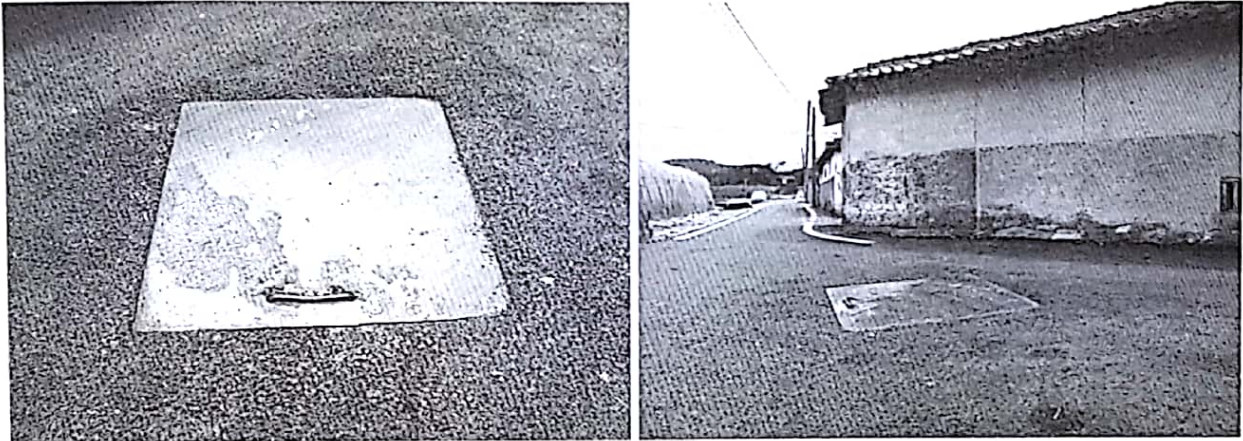
부근에는 전주이씨 재실이 있고 앞에는 방죽이 있으며 약간 떨어진 곳에 국립전주박물관이 있다.

안산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삼길 43-17

【축조시기】 조선후기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사각형(덮개) 【규격】 높이 0cm, 깊이 약 2m



안산 마을 공동 우물이 마을 가운데 있다고 하나 찾을 길이 없어, 마을회관 아주머니들에 물어보니 알려주었다. 이 우물의 깊이는 약 2m가 넘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 와서 물을 길어다 먹었으며 차츰차츰 개인 우물이 생기면서 몇 사람만 먹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수도가 들어오면서 철판으로 뚜껑을 하여 닫아둔 상태이며 지금도 철판을 열면 물이 그득하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와서 모두 김장을 하고 빨래를 하였다고 한다.

물맛이 좋기로 이 근방에서는 유명하고 마을회관 어르신들은 “여름이면 이 물에 보리밥을 말아서 된장에 고추를 찍어 먹으면 그만이지.”라고 앞다투어 얘기하곤 한다. 항상 청정한 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봄가을로 동네 청년들이 우물 청소를 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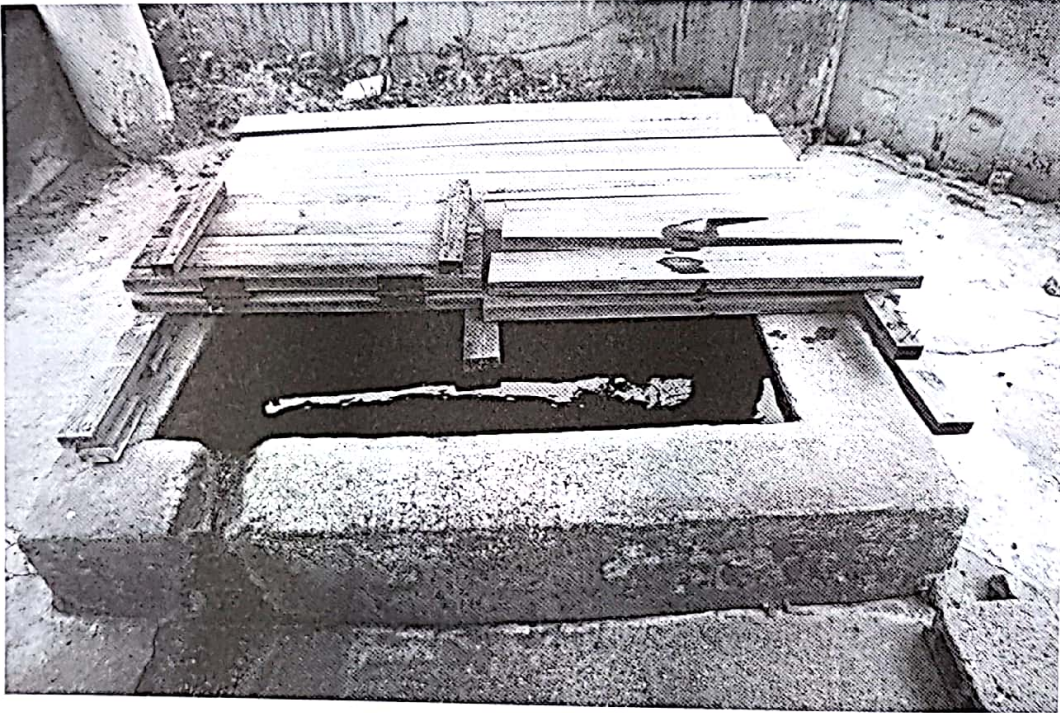
호동(虎洞)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호동길 66

【축조시기】 조선후기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사각형 【규격】 높이 24cm, 깊이 220cm

판석 가로 178cm, 세로 177cm, 두께 22cm



호동 마을은 국립전주박물관을 지나 월선 마을에서 좌회전하여 남쪽 방향으로 가면 산 밑에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 마을은 멀리서 보면 당산 나무가 있고 마을 중앙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 속을 보면 2m가 넘는데도 바닥이 흰히 보인다. 바로 옆에 길이 있어 먼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판자 덮개가 있으며 목마른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바가지가 놓여 있다. 지금도 동네 할머니들이 와서 넘쳐나는 물을 이용해 빨래를 하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서서 빨래를 할 수 있는 빨래판이 있어 이불 등을 빨라고 한다. 특히 기와집 할머니가 많이 이용한다 한다. 왜냐면 할머니들은 한 푼의 수돗물 값이라도 절약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호동 마을 우물은 수량이 많아 어떤 가뭄에도 마른 적이 없으며 옆 동네

모과 마을에서는 물이 떨어지면 이곳까지 와서 가져갔다고 한다.

우물 주변은 시멘트 집이 있어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으며, 주변에는 김장과 그릇을 씻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 마을은 개인 시암이 없어 밥 짓는 시간에는 물지게를 지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즉 이 물이 아니면 생활할 수도 없고 밥을 끓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물이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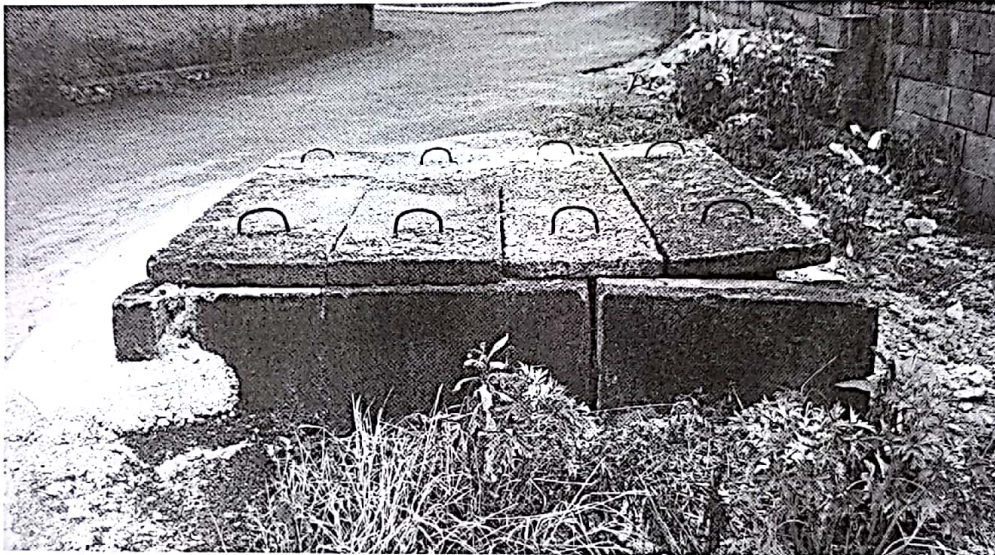
동네 어른들에게 어느 성씨가 많이 사냐고 물어보니 주로 강씨, 진씨, 시씨가 많이 산다고 한다. 또 이 마을은 한국 역도의 영원한 여신 장미란 선수가 살았던 곳으로, 우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2008년 제 29회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5개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서 있다. 아마도 장미란 선수는 이 호동 마을 우물의 물을 먹으면서 호랑이 같은 힘을 길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모과(冒科)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모과길 23 부근

【축조시기】 조선후기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사각형 【규격】 높이 55cm, 깊이 330cm, 넓이 182*205cm



모과 마을은 옛 통계청 자리에서 남쪽으로 중북천을 건너 석산 마을 길로 접어들어 좌측길로 가면 나온다. 모과 마을은 중앙에는 마을회관이 있으며, 이곳 사람들은 모래개, 모개 등으로 불리고 있다. 즉 풍수설에 의하면 호동의 범이 이곳의 개를 몰아서 쑥고개로 보내는 형국이라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어쨌든 한문으로는 모과(冒科)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상당히 어려운 한자이다.

이 우물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길 가에 있어 위험해지자 콘크리트 뚜껑을 덮었다. 사실 현재는 수돗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 바로 옆집 사람이 모터를 설치해 화단에 물을 줄 때 사용한다고 한다.

우물을 자주 청소해야 하지만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우물 청소는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이 잘 정비되어 사용했으면 하지만 현재는 사용 용도가 없기 때문에 빠른 대안은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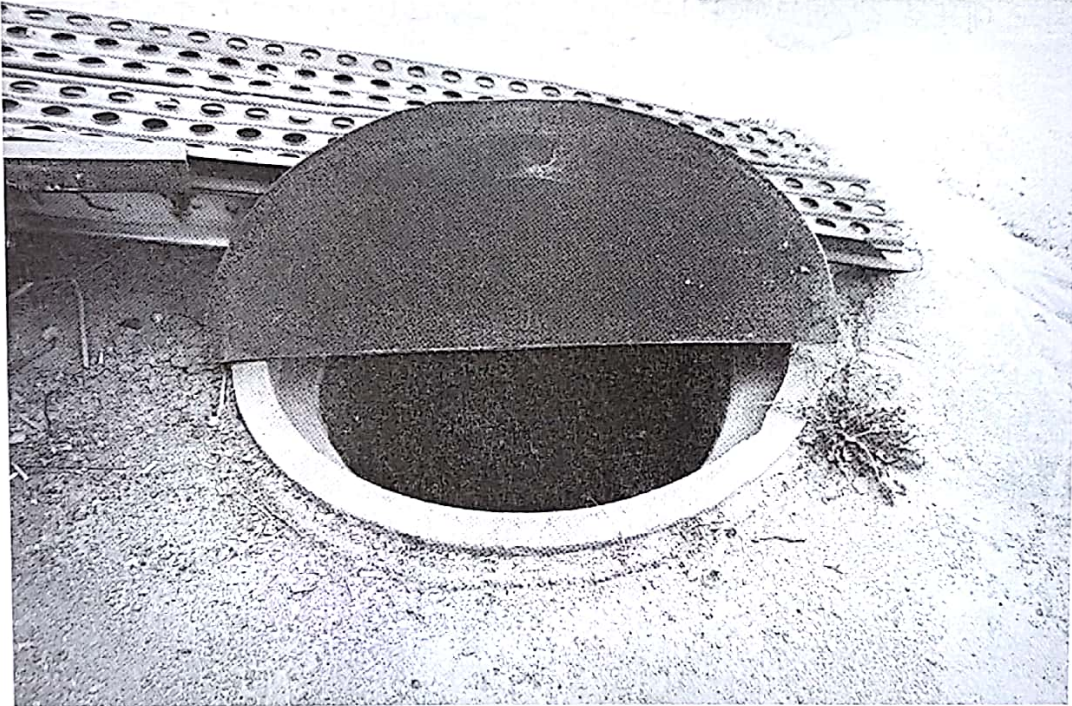
콘크리트 뚜껑 사이로 줄자를 넣어 우물 깊이를 재보니 깊이가 330m이며, 수심이 무려 200m가 넘었다. 요즘 비가 오지 않았지만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

비아(飛鴉)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비야길 80

【축조시기】 조선후기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10cm, 깊이 280cm, 지름 140cm(흙관 3개 사용)



비아 마을은 계룡산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해성중고등학교와 풀꽃세상채식뷔페집을 지나 바로 우측인 비아 길로 들어가면 된다. 마을 뒷동산에는 이인거의 반란을 진압한 공로로 1등소무원종공신으로 책록된 춘포 유신로의 묘소가 있다. 이 마을은 논농사도 하지만 주로 복숭아와 매실 농사를 많이 하는 편이다. 이 마을은 뒷산 형상이 날아가는 가마귀와 비슷하다 하여 비아탁시(飛鴉啄屍)형이라 한다.

이 마을은 전통적으로 음력 백중이 되면 바쁜 농사일이 한 고비를 넘기게 되어, 농사에 지친 심신을 달래며 농사일로 갈등을 겪던 이웃들과도 양금을 푸는 한바탕 놀이마당이 벌어진다. 그것을 '마을굿' 또는 '술맥이', '호미씻이'로 불렀으며 농악을 앞세우고 마을 집집을 돌며, 집집마다 술과 음식을 내어 한바탕 어울림의 마당이 벌어지는 것이다. 논농사 위주의 옛날에 있었던

민속을 세내라는 천을 사이에 두구 70여 호의 주민이 옛 기점놀이를 지금껏 계승하고 있다.

전주시 삼천동 2가의 자연 마을인 비아·정동·용산·함대마을의 지역토착민들을 중심으로 1998년 '전주기점놀이보존회'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한다. 특히 2005년에는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2007년에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은상을 수상하는 등 그 민속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비아 마을에는 오래된 전주기점놀이용 용기가 보존되어 있으며, 해마다 동네를 돌아가면서 백중놀이를 실시하고 있다.

마을 중앙에는 마을 우물이 있으며 위험에 노출되어 철판으로 덮어 둔 상태이다. 열쇠를 열고 속을 보니 호스가 연결된 것으로 보아 몇 집이 이 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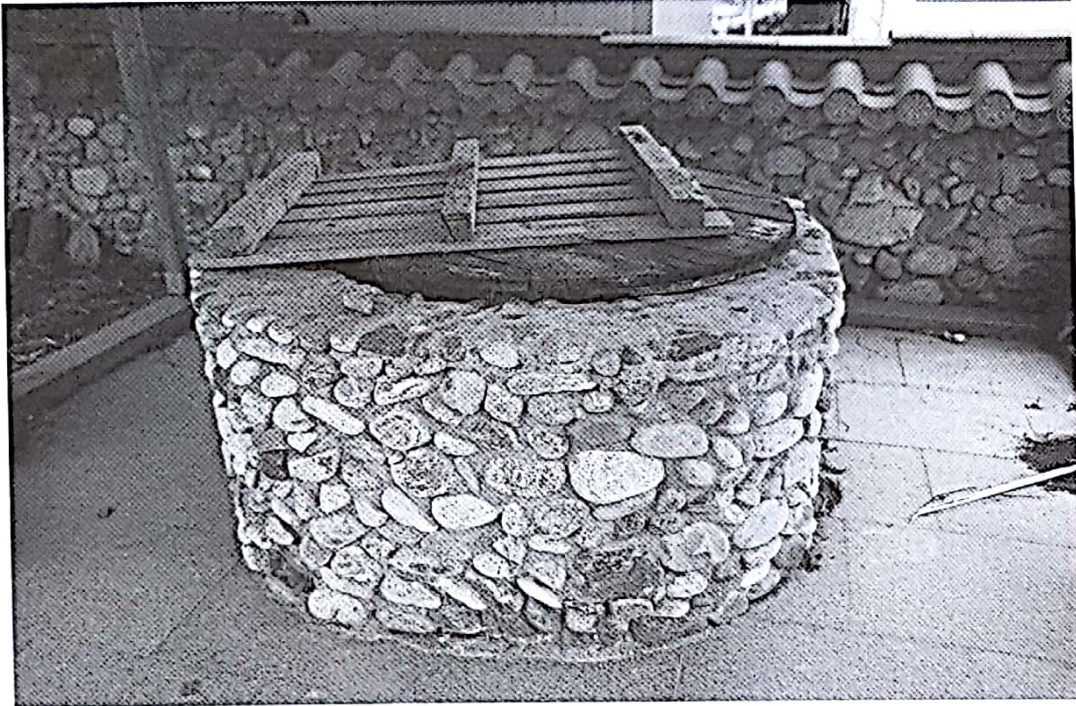
옛날에는 이곳에서 주로 물을 길고 빨래 등을 했으며, 저녁에는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등목을 하곤 했다 한다.

장자동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2가 642-4

【축조시기】 조선후기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70cm, 깊이 260cm, 지름 150cm



이곳은 전주 주말농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휴일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곳이다. 이곳은 삼거리 길로 장자동, 삼천자동차운전학원 그리고 비아 마을로 갈 수 있다. 주변에는 고인돌이 3기 있으며 예전에는 커다란 고목인 팽나무가 있었으나 지금은 고사되어 옛 무성했던 시절을 어렵듯이 가늠할 수 있다.

장자동은 비아 마을 남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는 논이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야산이 있어 밭농사 하기에 적당하다.

장자동 우물은 비가 들어가지 않게 비가림을 했으며, 우물 주변도 정리정돈을 했다. 우물 높이도 돌을 사용하며 치장을 했으며 유리뚜껑을 사용하여 덮어 놓았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주말농장에 오가기 때문에 안전상 덮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망월(望月) 큰시암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북동 539

【축조시기】 조선후기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40cm, 깊이 220cm, 지름 90cm



망월 마월은 중인삼거리에서 금산사 방향으로 조금 가다 오일뱅크 앞에 커다란 버드나무 보호수가 보이면 우측으로 들어간다. 마을에는 3개의 공동우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2개만 현존한 상태이다. 즉 물이 차다 해서 찬시암이 마을회관 앞 논 가운데 있었으나 용도가 없어지자 사라진 상태이다.

큰시암은 마을 서쪽에 있는데 물이 많이 나와 보리쌀과 쌀을 많이 씻었다고 한다. 사실 옛날에는 가뭄이 들고 물이 없으면 못 살았다. 그래서 물을 길기 위해서 옴박지(물동이)를 놓고 줄을 섰으며, 빨래 등은 앞 포랑에 가서 하기도 했다 한다. 어떤 때는 물을 서로 뜨기 위해 싸움을 하기도 하였으며, 서로 물동이를 작대기로 때리는 바람에 조각이 튀어 머리를 맞아 피가 난 적도 있다고 이 마을 할머니는 증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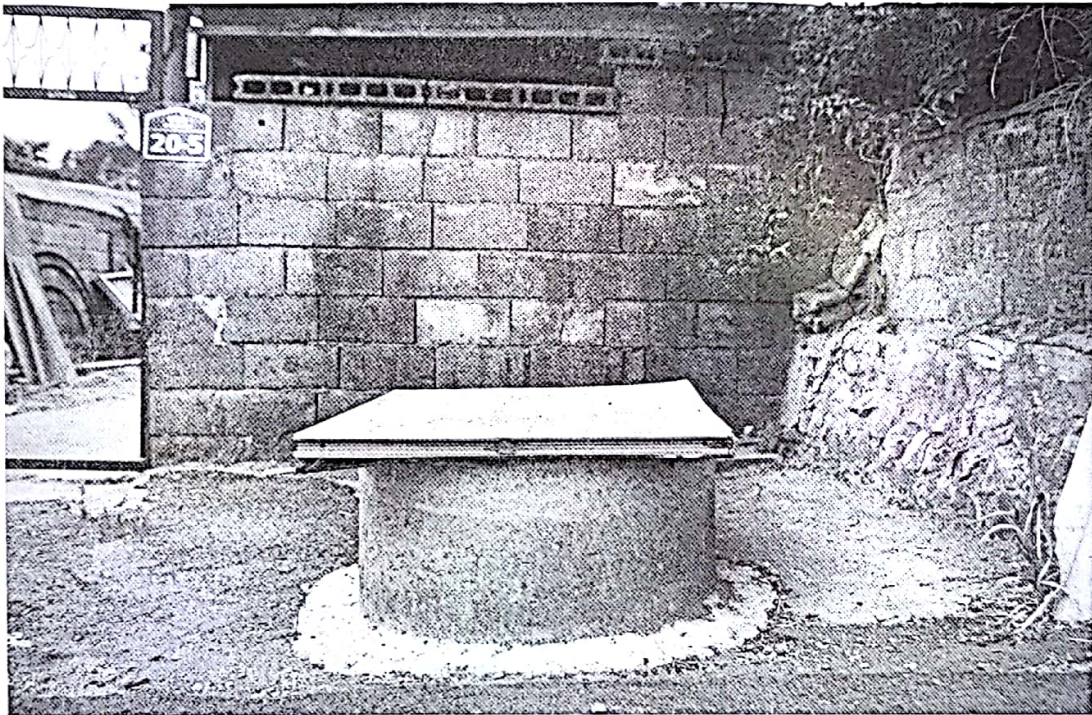
포랑이 있는 이 일대는 사금을 캐기 위하여 논을 모두 갈아엎은 적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금을 엄청 많이 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마을 앞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왕버들나무가 있는데 이곳에는 송아지만 한 금덩이가 묻혔다고 전한다.

망월(望月) 작은시암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망월길 20-5(용복동)

【축조시기】 조선후기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40cm, 깊이 300cm, 지름 90cm



망월 마을 동쪽 산비탈에 있는데 주로 우물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사용하였다 한다. 지금은 바로 옆집에서 펌프를 사용하여 물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으며, 이 집은 수도를 놓지 않고 이 물을 먹는다 한다.

큰시암에 비하여 물이 많이 나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 우물을 항상 청결하게 청소하고 관리했다고 한다. 지금은 한 서너 집이 사용하고 있으며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하였다.

학전(鶴田) 가운데시암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1085-3

【축조시기】 조선후기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0cm, 지름 140cm



학전 마을은 중인리에서 좌회전하여 구이 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운동장 너머 바로 첫 번째 마을이다. 가운데시암은 완산구 원당동 1085-3에 위치하는데 항상 물이 많아 넘쳤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 위쪽으로 큰 도로가 나면서 물길이 끊겨 지금은 예전과 비교하여 많이 감소한 상태이다.

이 가운데시암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였으며, 지금은 넘친 물로 작은 호수를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현재는 옆에 도로가 지나가면서 뚜껑을 덮어 둔 상태이다.

학전(鶴田) 웃시암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학전길 69-6

【축조시기】 조선후기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70cm, 깊이 580cm, 지름 70cm

학전 마을회관과 가운데시암을 통과하면 마을 가장 높은 지역에 아담한 시암이 있다. 산 중턱에 있는데 물이 시원하고 맛이 있어 지금도 몇 집은 이 물을 사용하고 있다. 흙관을 여러 개 묻었고,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덮개를 하였다.

이 우물은 다른 우물과 비교하여 깊이가 무려 580cm가 넘었으며,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대낮인데도 밑이 잘 보이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혹 우물을 고쳐주냐고 질문을 하지만 현황만 파악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역시 이곳 주민들도 무슨 혜택을 은근히 기대하지만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심정이 안타까울 뿐이다.

아직도 마을 주민들이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의외로 많다. 물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완산 옥매천(玉梅泉) 약수터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 3길 18-23

【축조시기】 조선시대 【유물성격】 공동약수터

【형태】 사각형 【규격】 높이 70cm, 넓이 350*140cm



완산약수터는 완산초등학교를 지나 마지막 골짜기에 있는데, 이곳은 편백 나무 숲과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완산약수터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 옥매천이란 비석이 있다. 또 송재(松齋)가 쓴 세심(洗心)이 보이며 바로 위에는 옥매천송(玉梅泉頌)과 약수터 내력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별빛 고인 새벽녘 여기 서면
푸른 뉘 맑은 물에 世塵도 씻겨
고마워라 새삼 열리는 생명의 환희

철 따라 구름 따라 정취는 바뀌어도
청아히 흐르는 人情을 안고
한 웅큼 藥水로 다스리는 고운 목숨

비사벌 완산 정기 그리움 싣고
시름도 웃음인 양 기꾸어 온 지대

아아 어느 하늘 아래 이 보람 또 깃들 것이라?

— 완산약수 玉梅泉에 부침

이 자리에 예로부터 천연수가 솟아 웅달샘을 이루었는데 땀띠샘이라 일컬으며 영험한 약수라 하여 무당과 병자들이 치성과 기도를 드렸고, 봉우리를 오르내리는 산책객들의 갈증을 풀어도 주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 이 약수를 애용하는 분들이 샘의 돌을 고르고 도랑을 치워 샘터를 정결히 하던 차 마침 새벽 등산 중의 이항익(李恒儀) 전라북도 지사님의 배려로 약수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무해무균 이질 성분이 없는 최우량 수질임이 밝혀져 그 효능이 더욱 뚜렷하여졌고, 그 위에 엄병건(嚴秉健) 전주시장이 샘터 주변의 시설을 시로 하여금 시공케 하여 이와 같은 정결한 약수터가 되었다.

이에 뜻있는 사람들이 완산약수동호회(完山藥水同護會)를 만들어 옥매천(玉梅泉)이라 이름하고 더욱 아름답게 닦고 정결하게 보전하여 길이 후세에 까지 유지 계승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부디 이곳을 찾아주시는 여러분께서도 우리와 뜻을 같이하여 주셔서 약수터의 정결과 미화에 한결 마음써주시기 바라나이다.

서기 1970년 8월1일

完山藥水同護會

시·글 白楊村 辛槿 글씨 笑灘 高在峻

이 글을 지은 백양촌 신근은 신진 전 국회의원의 아버지로 고향은 부안으로 전라신보사 편집부국장과 삼례중학교를 시작으로 여러 곳에서 교편을 잡았다. 1962년 문협 전북지부장, 예총 전북지부장('66-'67년)을 지냈으며 전북문화상 문학 부문('66년)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옥매천은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무려 자기는 40년간 이 물을 먹었다고 한다. 멀리서 중앙동에서 보면 가끔 무지개가 뜨는데 이곳에서 시작하여 좁은목 약수터로 뻗는 형상이 너무 멋지다고 말을 한다. 그래서 자기는 전주에서 가장 좋은 물은 옥매천과 좁은목약수터로 믿고 있다고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한다. 꼭 완산을 오르는 사람은 이 물맛을 보시기 바란다.

좁은목 약수터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393(동서학동 산 152-7)

【축조시기】 고대 【우물성격】 공동약수터

【형태】 【규격】 높이 40cm, 길이 900cm



좁은목 약수터는 전주에서 남원 가는 초입으로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만들어진 약수터다. 물이 맑고 맛이 좋아 전주인들이 즐겨 찾는 약수터이다. 이곳은 한때 폐쇄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UVB살균시설을 갖추어 약수에 있는 대장균 등 유해균을 살균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좁은목 약수터는 물맛이 좋아 40여 년 전부터 하루 300여 명씩이 찾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질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만지(晩止)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만지길 21 앞

【축조시기】 조선후기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사각형 【규격】 높이 130cm, 길이 415cm, 넓이 140*140cm



전주대학교에서 김제 방향으로 가다 전주선화학교가 나오면 학교 담을 끼고 돌아 뒤에 있다. 만지 마을은 원래 천안전씨들이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많이 옮겨가고 타성들이 와서 살고 있다.

만지 우물은 시멘트 홈관을 묻었으며 지상부는 벽돌을 쌓고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판으로 투경을 하였다. 동네 분과 함께 투경을 열어보니 수도파이프가 3개 연결되어 있지만 대부분 수도가 들어오면서는 이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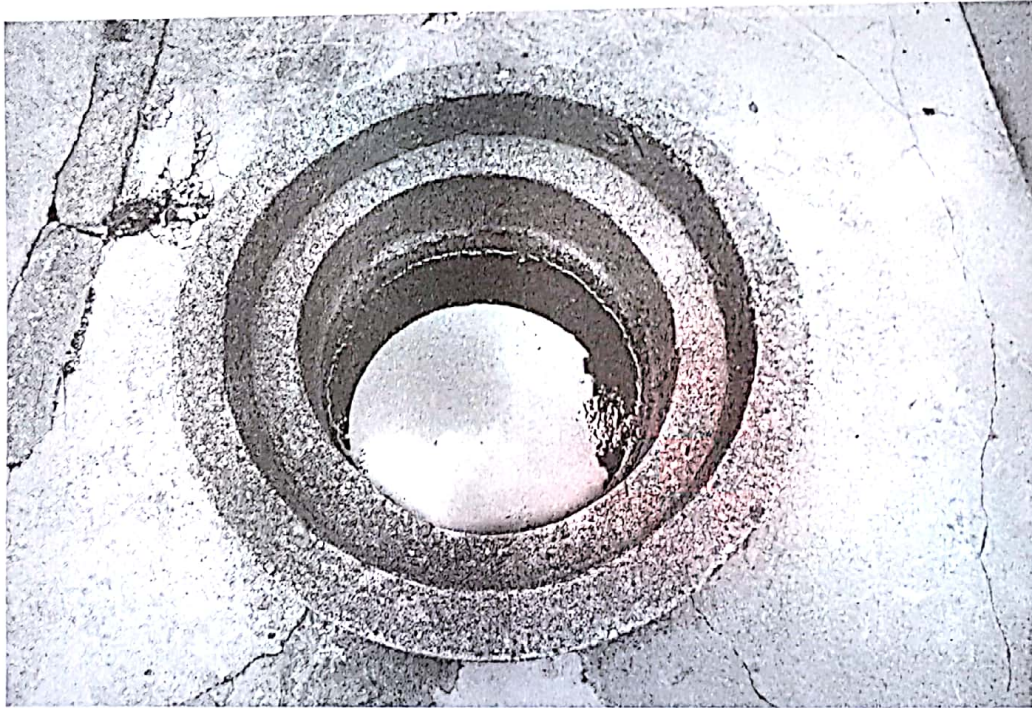
만지(晩止) 마을 서쪽에는 서전주패션타운이 바로 길 건너 앞쪽에는 우주 황씨들 묘소와 재실이 있는 묵우실(묵고실, 묶어실, 동거리)이 있다. 묵우실은 뒷산의 모양이 누워 있는 소를 묶어 놓은 것 같아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만지 마을에서 조금 김제 쪽으로 가면 고개가 나오는데 이것이 만지고개이다.

황강서원(黃岡書院)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 5길 8-7

【축조시기】 조선시대 【우물성격】 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15cm, 깊이 105cm, 지름 90cm



황강서원은 황강 이문정을 중심으로 이백유·이경동·이목·이덕린·유인홍·강해우 등을 추모하기 위한 서원이다. 원래 곤지산 아래인 맏골에 있었는데,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으로 불타고 고종 6년(1869)에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거되었다. 그 뒤 광무 2년(1898)에 지금 있는 자리로 옮겨 다시 지었다. 강당은 앞면 3칸·옆면 3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으로 꾸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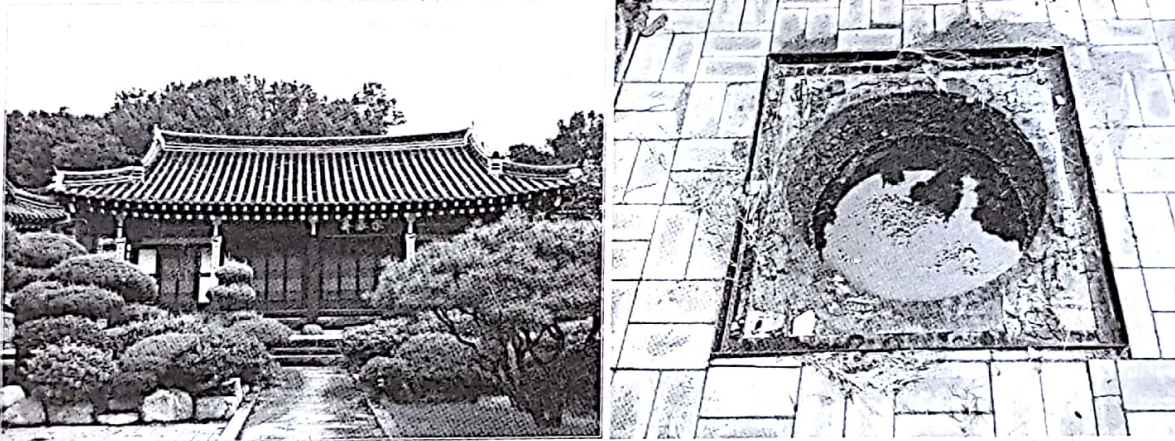
정면에는 황강서원이란 편액과 서쪽에는 강암 송성용이 쓴 완산재라는 편액이 돌보인다. 우물은 서원 서쪽에 있는데 그리 크지도 않고 깊지도 않다.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우물로 볼 수 있다.

황강서원 영모재(黃岡書院 永慕齋)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 5길 8-7

【축조시기】 조선시대 【우물성격】 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0cm, 깊이 130cm, 지름 90cm



황강서원 동쪽에 있는 영모재는 전주이씨 시중공파 황강공대종원 참의공가계 사정공 종중이다. 들어가는 입구는 솟을대문이고 관리실이 있는데 고서가 만 권이 넘는다.

영모재 글씨는 행서로 썼는데 서자는 방산 이준철(1895~1948)이다. 이준철은 난곡 송병화의 제자로 이석용이 1915년 대구형무소에서 죽자 1940년 비문을 작성 추모비를 세웠다. 이후 독립유공자 직손들의 생계를 도왔으며 결국 옥고를 치렀으며 1943년 출옥한 애국지사다. 김영삼 시절 대통령 표창을 받은 유공자이다. 우물은 영모재 서쪽에 있는데 예전에는 우물의 형식을 잘 갖추었지만 지금은 위험하여 철판으로 덮어 놓았다. 우물은 정비가 안 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 건물을 청소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영모재 주련을 옮겨본다.

지성취기문동월지관화(至誠聚氣聞冬月之關花)

기효치경진자성지미충(起孝致敬盡子姓之微衷)

일엽유근성춘우지윤목(自葉流根感春雨之潤木)

적덕계인비조선지여음(積德界仁庇祖先之餘蔭)

주련 내용은 전주이씨 종친들이 꽃을 피우고 충효열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번창하기를 바라는 문구다.

마전(麻田)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 5길 10-26

【축조시기】 일제시대 【우물성격】 마을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55cm, 깊이 240cm, 지름 70cm



마전 마을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모두 없어지고 오로지 황강서원에서 작은 산길을 따라가면 약 8가구가 남아 있는 유일한 마을이다. 이곳은 주로 전주이씨 시중공파들이 살고 있으며 황강서원과 긴밀한 동네이다.

마을 중앙에 작은 우물이 있는데 플라스틱 투경으로 덮어 놓았다. 이 물은 수돗물이 들어오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도 아파트 청소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큰 통으로 물을 옮긴 다음 갖다가 쓴다고 바로 옆집 할머니가 귀띔해준다.

이 마을 동쪽 정상에는 고려 말에 황강 이문정이 고향인 이곳에 내려와 전주 시가지를 내려다보면서 지은 '문학대'가 있다. 사실 문학대도 호반베르디움 자리에 있었는데 이곳으로 다시 옮겨온 것이다. 문학대는 전주의 전통 문화이고 교육의 산실이기에 앞으로 찾는 이가 많았으면 한다.

용수동(龍首(水)洞)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94번지

【축조시기】 조선시대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10cm, 깊이 120cm, 지름 70cm



용수동 우물은 조정단 전주이씨제각 들어가는 좌측 입구인 덕진구 덕진동 1가 94번지에 있다. 용수동 들어가는 입구에는 음식점이 있고 물이 모이는 곳으로 오래된 왕버들나무 군락지이다.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좌측에 우물이 있는데 지금은 관리가 되지 않아 물을 사용할 수 없다.

전주건지산도형은 전주에 있는 건지산과 전주이씨 시조인 이한공의 묘역을 중심으로 산 전체를 조망한 상형도이다. 이 그림은 조정단과 비각이 나타나며 바로 북쪽에 있는 제실이 그려져 있다. 제실 주변에는 집이 6칸 그려져 있고 이곳을 용수동(龍首洞)으로 기록하고 있다. 용은 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곳이 물이 좋아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이 용수동 우물은 물이 넘쳐흐를 정도로 많고 주변은 시멘트로 정비가 되었지만 지금은 관리하지 않고 있다.

용흥(龍興)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764-3

【축조시기】 조선시대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5cm, 깊이 400cm, 지름 70cm



용흥 마을은 만성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천고사와 미륵불이 있으며, 동네 입구에는 모종과 느티나무 그리고 100년이 넘는 만성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마을은 황방산을 뒤로하고 넓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물은 동네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데 은행나무와 평상이 놓여 있다 .

예전에는 우물이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흙관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었는데, 근래 논 객토작업을 하면서 우물 뚜껑을 만들어 덮어 둔 상태이다. 현재 우물을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유용성에 의하여 소멸되어 가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우물의 형태는 묻지 않고 보존하는 것도 의미 있다 하겠다.

서고사(西固寺)시암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10-90(만성동 84)

【축조시기】 후백제시대 【유물성격】 사찰샘

【형태】 원형 【규격】 높이 40cm, 깊이 35cm, 지름 82cm(돌학)



서고사에 가는 길은 천고사에서 북쪽 JTV방향으로 가다 서고사 이정표가 나오면 황방산 산 쪽을 바라보고 올라가야 한다. 올라가는 반대 방향은 만성지구 혁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으며 여기저기 문화재 발굴 및 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고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의 말사로, 908년 후백제의 견훤이 완산주(完山州)에 도읍을 정하고 국운의 회복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에 각각 동고진, 서고진, 남고진을 두고, 각 진마다 사찰을 지어 외침을 막고자 하였다.

이 중 서고진은 명덕(明德)에게 창건하도록 하였고, 이후 1363년(공민왕 12) 혜공대사가 중창하였다. 조선에서는 전주의 사방을 방비하는 사고(四

固)사찰의 하나로 중요시되었는데, 1624년(인조 2) 지엄대사가, 그리고 1763년(영조 39) 벽송대사가 중창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 때 가람이 완전히 소실되었다가 이후 지금의 주지인 의성 스님이 1989년 불사를 시작하여 1996년 전통사찰로 지정받아 고찰의 면모를 갖추었다.

서고사가 있는 황방산은 원래 돌산으로 되어 있어 암반으로 전체가 박혀 있고, 이 중 바위 속에 솟아나는 물을 보고 절을 잡았을 것이다. 이곳은 물맛이 좋고 한번 먹어본 사람은 맛이 청정하다고 말한다고 한다. 돌 틈에서 나오는 물을 바가지로 떠서 먹으면 신선함과 청정함 자체이다.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후 검사표를 붙여 놓기 때문에,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주지 스님은 얘기한다. 물 받는 화강암 통은 호롱처럼 만들어 놓았으며, 그 위 기왓장을 떠들면 원천수를 볼 수 있다. 샘이 있는 위에는 극락보전과 나한전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만성(萬成)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94-1

【축조시기】 조선후기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5cm, 깊이 205cm, 지름 195cm



만성리는 전주군 이동면 지역이었다가 완주군 조촌면으로 변한 후 다시 전주시 만성동으로 되었다. 남쪽에는 옥계 마을이 있고 뒤쪽에는 새로 이사 온 JTV(전주방송)가 위치하고 있다. 마을 좌측으로는 정여립대호가 확장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마을은 혁신도시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모두 이사를 간 상태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만성 마을은 혁신도시로 들어가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1년 만에 폐촌이 되었다. 집을 헐고 콘크리트 더미에서 철근이 나오자 이것을 수집해가는 사람들이 분주할 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담장 너머로 복분자와 자줏빛 자두가 탐스럽게 익었는데, 따먹을 주인이 온데간데없다. 즉 쓸쓸하게 나무만 주인 없는 집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 앞

으로 좋은 곳으로 옮겨져 제2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쓰러져가는 방앗간을 지나 옥계 마을로 가는 남쪽 길을 따라 가면 작은 다리 밑에 거대한 원형 우물이 있는데 물이 철철 넘쳐나고 있었으며 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비가림시설(400*500cm)을 했다.

이 우물은 서고사 쪽에서 흐르는 냇물이 지나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량이 많아 만성 마을과 옥계 마을 두 개 마을 사람들까지 먹었을 것으로 본다. 우물 아래는 넘쳐난 물의 영향으로 돌미나리가 자라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유채가 여물었지만 수확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바로 앞에는 혁신도시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이 만성동 우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원만성(元萬成)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길 26-8

【축조시기】 조선후기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사각형 【규격】 높이 82cm, 깊이 cm, 넓이 115*114cm(뚜껑)



만성동은 뒷산을 배경으로 남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황방산 쪽으로
는 마을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즉 마을회관에서 우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곳은 마을 정상 부근에 우물이 있어 약 20호가 먹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사를 가면서 우물을 방치한 상태이며 바로
옆에는 접시꽃과 잘 익은 복분자만 우물을 지키고 있다.

약수암(藥水庵) 약수터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461-15(도당산로 46-10)

【축조시기】 1985 【유물성격】 공동유물

【형태】 【규격】 높이 64cm, 깊이 64cm, 넓이 92*110cm



약수암은 약 1985년경에 이순남 비구니가 창건하였다고 하는데, 이때 약수터를 만들었다고 한다. 약수터 앞에는 약사여래가 감로수병을 들고 있으며 바로 우측에는 아담한 5층 석탑이 놓여 있다.

약수는 2곳에서 파이프로 나오고 있으며 주변에는 학독, 용두(龍頭), 불전함 등이 있었다. 약수터는 약간 움푹 들어간 곳에 원형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나무와 꽃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었다. 약수터 위에는 산신각과 보살상이 있다.

약수터 앞에는 6지구 펼쳐지고 바로 전주 승마장 뒷산과 호성동 아파트 등이 잘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약수터 앞에는 약수암이 자리하고 있다.

원금상(元金上) 빨래터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금상길 22

【축조시기】 대한민국 【우물성격】 공동 빨래터

【형태】 직사각형 【규격】 빨래터 넓이 520*230cm



원금상 마을은 회안대군 방간의 묘소와 신도비 그리고 재각이 있는 마을이다. 이 묘소에서 조금 올라가면 원금상 마을이 나오는데, 이 마을은 수리재를 넘어 행치리와 마당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원금상 마을은 동네 시암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마을 모정과 빨래터만 남아 있다. 빨래터는 양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냇물을 이용하여 이불과 빨래를 빨았으며, 지금도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애용한다.

빨래터 바로 밑에는 아주 높은 물탱크가 있어 예전에는 아주 유용하게 쓰였을 거라고 사료된다.

산제(山祭)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328-3

【축조시기】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250cm, 넓이 520*350cm(물탱크)



산제 마을은 금상동으로 들어가서 좌측 길로 접어들어 순천완주고속도로 밑을 통과하여 올라가면 막다른 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은 예전에 산제를 지낸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즉 산제와 산재를 혼용하여 쓰고 있다. 또 북쪽에는 야산이 있어 바람을 막아주고 있으며, 남쪽는 작은 뜰이 있다.

산제 마을에서 북쪽 산길을 넘어가면 석소 마을과 연결되는데 도로포장이 안 돼 있어 걸어갈 수는 있는데 승용차로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마을에서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산제당골이다. 이곳에는 마을에서 쓰는 물을 위 계곡에서 집수한 후 집집이 수도를 연결하여 쓰고 있다. 현재는 수도시설이 들어왔지만 약 7가구 정도는 이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집수시설은 3군데 건물이 있는데 가장 처음 것은 폐쇄되었고, 두 번째 것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며 칸막이가 되어 있었다. 또 가장 위쪽에 있는 집수시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네 분들에게 물어보니 이장이 이곳 주변을 정리하고 잡초제거와 소독을 주기적으로 한다고 한다.

공덕(孔德)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산 133

【축조시기】 1980년경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사각형 【규격】 높이 250cm, 집수시설 350*420cm



공덕 마을은 원래 완주군 용진에 속했다가 덕진구 금상동이 되었다. 공덕 마을을 가려면 가소와 삼천 마을을 거쳐야 한다. 마을이 평온하며 배나무와 복숭아나무가 많이 보였다.

묵방산의 한 산맥이 법수메로 오다가 우뚝 솟은 산이 두리봉이다. 두리봉에서 북쪽으로 골짜기를 만드는데 하나는 서당골이고 하나는 북당골이다.

즉 공덕 마을에서 보면 좌측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이 서당골이고, 우측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이 북당골(불당골)인데, 북당골에는 찬시암이 있어 이곳에서 물을 받아 공덕 마을 집수시설까지 약 2km 정도 호스를 연결하여 옮겨 온다.

이 물은 공덕 마을 사람들만 먹고 있으며 물이 부족하면 용담댐에서 오는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한다. 마을 통장은 수시로 소독약을 갖다 살포하며 동네 비용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공덕 마을은 석소 마을과 비슷하게 전의이씨 집성촌으로 이루어졌으며, 농토가 기름지고 산세가 안락하여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전원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

삼천(三泉)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271-2

【축조시기】 조선시대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75cm, 깊이 410cm, 지름 405cm



삼거리 마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작은 야산을 통과하면 마을 모정과 애향수 그리고 마을회관이 있다. 주로 이 마을은 조양임씨가 집성하여 산다고 한다. 들어가는 입구에 삼천기념비가 세워져 있어 마을의 유래와 우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즉 이 마을은 아주 좋은 샘이 3개 있어서 삼천이라고 불렸다는 이야기다. 지금은 3개의 우물 중 유독 한 개만 남아 있어 이처럼 보존하고자 기념비를 세웠다는 내용이다.

삼천 우물 앞에는 딸미산이 있는데 아주 쌍뚱맞게 서 있다. 원래 동네 분 김낙원 씨에 의하면 “아주 옛날 단암사 있는 쪽에서 큰 강을 따라 이 산이 떠내려 오는데 이것을 이 마을에 사는 딸이 보고는 놀랜 나머지 방안에 있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어머니 저 거시기 자-자- 산이 막 떠내려 오네요 하고 큰소리를 치니(그 순간) 떠내려 오던 산이 깜짝 놀라 이 자리에 멈춰섰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이 삼천은 지금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움푹 들어가 있어 물이 막 솟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 즉 물이 넘쳐 흘러가게 되어 있었다. 이 우물은 여름이

면 시원하고 겨울에 아주 따뜻하여 이 마을로 시집 오는 사람들은 복받은 여자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정이 있는 여자분들께 복받은 여자들이냐고 물어보니, 복받은 여자분들은 모두 딴 세상에 있다고 농담을 한다.

흘러가는 물에서 장정들은 등목을 하고, 조금 내려가서 산모퉁이에서 여자들은 저녁에 목욕을 했다 한다. 여자들이 목욕했던 자리에는 새로 지은 모정이 있는데 바람도 잘 들어오고 저녁때가 되면 산그늘이 져서 아주 좋다고 한다.

삼천 우물은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물을 먹었는데 얼마 전 모래 채취를 하고 그 자리에 흙을 메우는 바람에 옛날 같지 않아 지금은 아주 밑에만 물이 고여 있다고 동네 분들이 안타까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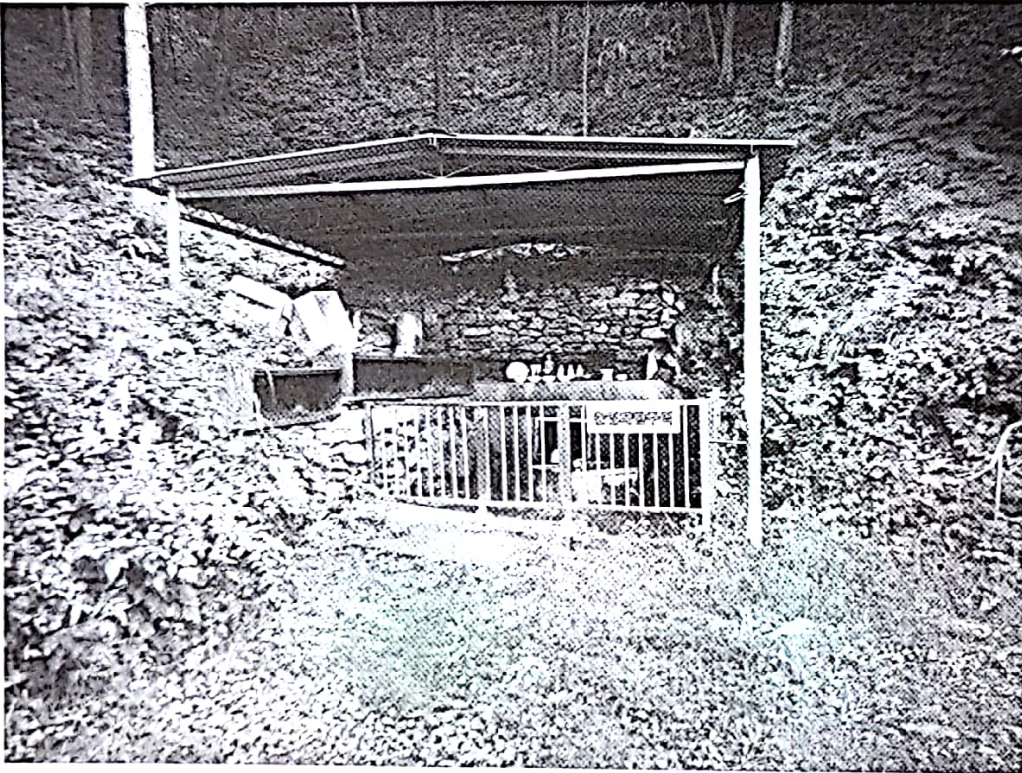
삼천은 전주의 우물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지름이 무려 4미터 이상이며 깊이도 4미터가 넘고 축조하는 방법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돌을 쌓았다. 윗부분은 적벽돌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선린사(仙麟寺)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6길 55(인후동 1가 16-13)

【축조시기】 미상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사형 【규격】 높이 86cm, 넓이 210*85cm, 수심 45cm



선린사는 인후동 기린봉 중턱에 자리하고 있어, 이곳에 오르면 전주 시내가 발아래 펼쳐진다. 이 사찰은 1962년 창건한 사찰이며 대웅전과 보광전, 삼성각, 진영각, 종각, 석탑, 요사, 염불전 등이 있다.

범당 위의 약수샘은 축대를 쌓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오른쪽에는 작은 구멍을 내 약수를 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물은 바위 틈에서 약수가 나오고 있으며 많은 양은 아니나 이 절 사람들이 먹기에는 충분하다고 한다.

절에서 내려오는 길에는 작은 집이 한두 채 있었고 흉고가 2미터 넘는 살구나무가 있었다.

기린봉(麒麟峰 동쪽) 약수터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 산 314

【축조시기】 미상 【우물성격】 공동 약수터

【형태】 수도시설 【규격】 높이 40cm, 수도시설이 되어 있음



아중저수지를 거쳐 아중산장 주차장에서 산길을 따라 남쪽으로 산 중턱까지 올라가면 약수터가 나온다.

시원한 물이 나오고 부근에는 펜스를 설치하여 편리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주변에는 세수를 할 수 있는 대야도 있으며 작은 바가지가 몇 개 있었다. 물이 나오는 곳은 화강암으로 조각된 두꺼비 모양 비슷한 조각상이 있고, 바로 밑에는 물이 고이는 석조가 놓여 있다.

기린봉 약수터는 덕진구청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2014. 4. 15일 음용수 적합이란 검사표가 붙어 있다. 또 다음 검사는 6월경에 한다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검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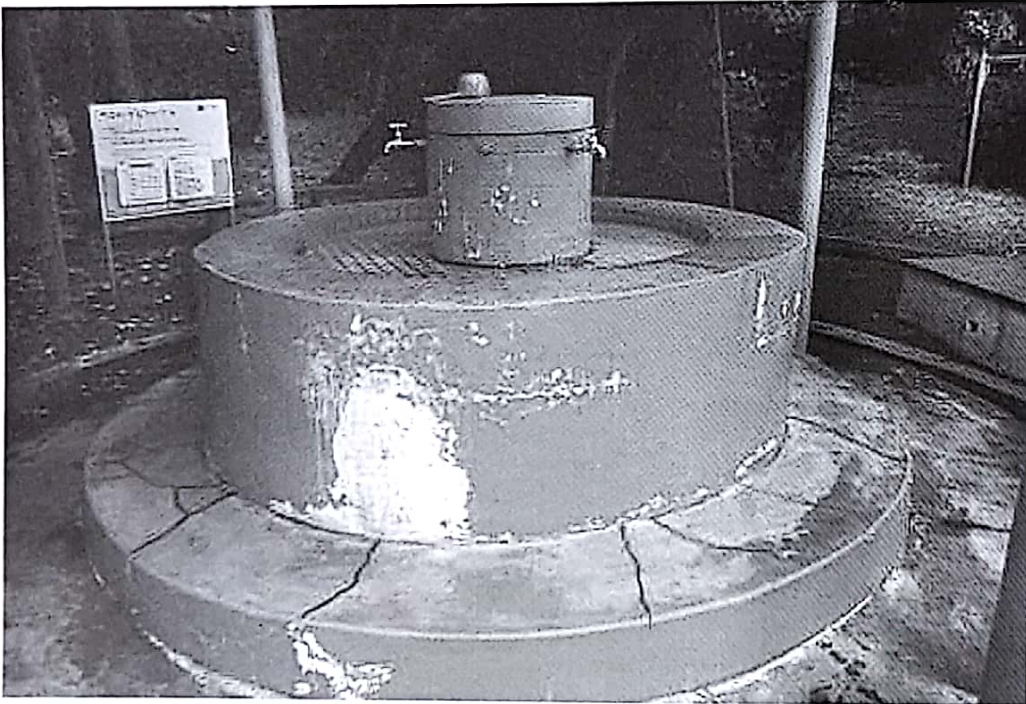
기린봉은 전주팔경의 하나로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이 등산을 하는 산이다. 새해가 되면 일 년의 다짐을 기원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이 찾아 헤뜨기 전 발 디딜 틈이 없는 곳이기도 하다. 기린봉 약수는 기린봉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등산객들이 이 물을 먹고 있다.

화산공원 어은골(華山公園 漁隱골) 약수터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991-34

【축조시기】 근대 【우물성격】 공동 약수터

【형태】 원형 【규격】 높이 90cm, 지름 220cm



화산공원 내 어은골 약수터는 전주시 진북동 991-34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진북초등학교에서 어은교를 넘어 직진한 다음 sk주유소 옆에 있다. 주변에는 오래된 한옥이 산 쪽으로 몇 채 있으며 바로 옆에는 간장을 파는 대리점이 있다.

화산공원 서쪽은 완산칠봉에서 연결된 산줄기가 지나가고 있으며, 산능성을 넘어가면 새로 개발된 주택단지촌으로 영선길(迎仙길)이 있는 지역이다. 어은터널이 뚫리기 전에는 아주 조용한 동네로 물고기들이 숨어 살기에 좋은 동네라 해서 어은골이라 한 지역이다. 이 약수터는 어은골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어은골은 작은 쌍다리가 있어 유명하며, 동네 한가운데 팽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용덕(龍德)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덕길 68-4 북쪽 포도밭 옆

【축조시기】 조선후기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원형

【규격】 지상부 높이 77cm, 깊이 580cm, 지름 110cm

판석 가로 116cm, 세로 116cm, 두께 9cm



용덕 마을은 전주톨게이트를 지나 성덕으로 가는 초입에 있으며 마을 안에는 2개의 우물이 있었다. 우물은 마을 들어가는 초등학교 앞에 모정이 있는데,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50미터 부근 논 가운데 있었다 한다. 이 우물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길어다 먹고 빨래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수도가 들어오면서 논 임자가 우물을 메웠다고 한다.

또 하나는 마을을 돌아 뒤쪽으로 가니 들어가는 초입 포도밭 옆에 우물이 있다. 이 우물은 깊이가 580cm이며, 돌출된 부위는 덮개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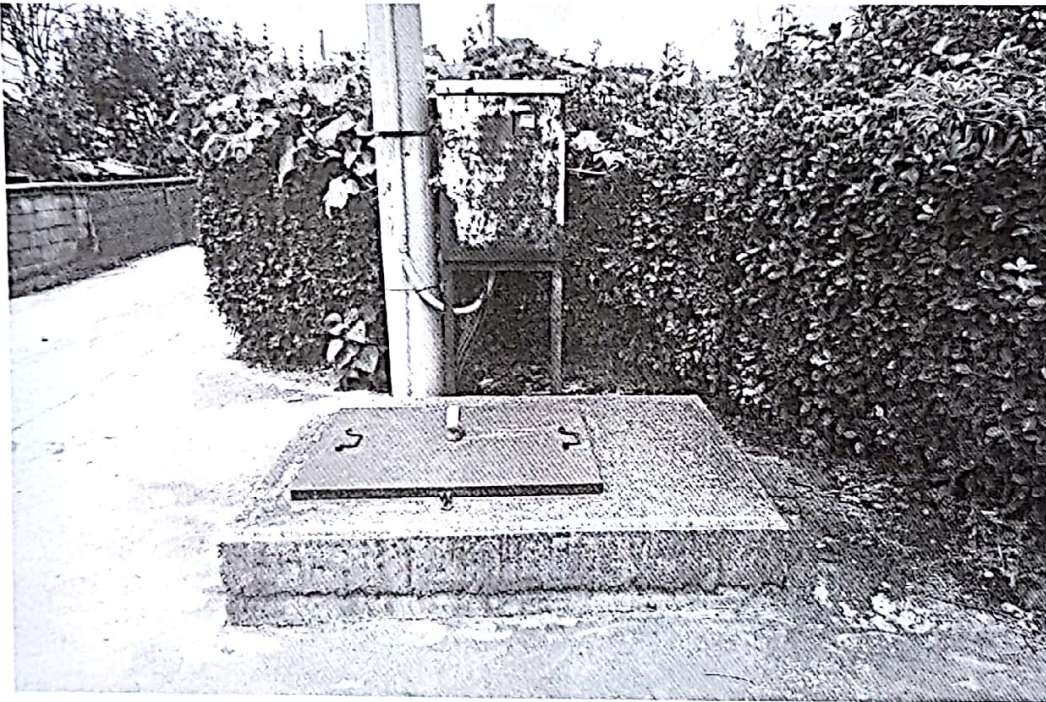
이 우물은 지금도 많은 수도관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수량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

덕동(德洞)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동길 11(남정동 350-19) 옆

【축조시기】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30cm, 깊이 모름, 크기 160*130cm



덕동 우물은 물맛이 좋고 많은 물이 나왔는데, 이곳에서 물을 뽑아 마을 뒷동산 물탱크로 올렸다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이 우물은 덕동 마을 간이상수도 취수원으로 수도법 제 17조에 의하여 보호 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하며, 시설 용량은 16톤으로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급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나들목공원 약수터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124-41

【축조시기】 근현대 【유물성격】 공동 약수터

【형태】 식수대 【규격】 길이 214cm, 폭 28cm, 높이 147cm(음용대)



이 약수터는 나들목공원 중심인 용정동 124-41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전주수목원 북쪽에 있는데 쉽게 말해 CBS(기독교방송) 뒤쪽 80미터인 가족 공원에 있다. 이곳은 음용대가 2개 있는 있는데 한 곳에 4개의 수도꼭지가 연결되어 있으며, 덕진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한다.

이 나들목공원은 전주톨게이트 부근으로 아주 높이 솟은 총화의탑이 있으며, 주변에 정구장, 어린이 교통공원, 팔각정, 스페이스넷, 기독교방송 등이 있다. 즉 도심 속 휴식공간인 도시근린공원으로 깨끗이 사용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약수터 주변에는 메타세쿼이아 숲길이 있고 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자갈길과 각종 놀이기구 및 운동기구 등이 놓여 있다. 간간이 아줌마들이 산책길에서 음악을 들으며 가벼운 산책을 한다.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어우러져 있다.

정암(井岩)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720번지

【축조시기】 조선 후기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100cm, 깊이 470cm, 지름 150cm



정암 마을 우물은 들어가는 좌측 입구 모정이 있는 곳에 있다. 입구에는 샘터라는 마을 표지판이 있고 바로 뒤에 우물이 있다.

이 정암 마을 우물은 박적샘터로 불렸으며 원래는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 났다고 한다. 한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였으며 물맛이 좋았다고 전해진다. 동쪽에는 월드컵경기장이 있고 남쪽에는 장동유통단지와 아파트가 들어서 예전에 비하면 천지가 개벽된 곳이다.

주민들은 현재 우물 터를 조성하고 모정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바깥도 돌로 장식하여 이쁘게 만들었다.

우물 안은 흙관을 묻었는데 깊이는 470cm이고 물의 깊이가 약 280cm 정도이다. 또 사람들이 우물 속에 물건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망을 얹어 놓았다.

정암 마을은 우물 정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고, 지금도 마을 길을 따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가막골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정암길 112 옆

【축조시기】 근현대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90cm, 깊이 270cm, 지름 70cm



정암 마을에서 산길을 따라 서쪽으로 올라가면 가막골이 나오는데, 이곳은 포도와 복숭아 농사를 많이 짓는다. 가막골은 가마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지형이 가마솥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풍수지리적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앞에는 우물이 있는데 지금은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논농사를 짓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 우물의 흙관이 2개가 포개여 있는 것이 보이고 바로 옆에는 논이 있다.

이 마을은 골짜기가 깊어 난리가 나면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오는 지역으로, 현재는 많은 사람이 살지는 않아 오지의 느낌이 드는 곳이다. 이 마을의 북서쪽은 장동 마을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진조리 빨래터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1가 327-6(진조리길)

【축조시기】 일제강점기 【우물성격】 공동 빨래터

【형태】 사각형 【규격】 전면 3칸, 측면 1칸 현대식 한옥지붕

전미동 지역은 만경강을 가까이 두고 있는 마을로 주로 들판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수도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마을 우물이나 샘을 찾는 것은 거의 힘들다. 대부분 샘터는 일찍부터 매몰이 되었고 만약 남아 있다면 흔적 정도만 있지 실지로 남아 있는 경우는 힘들다.

전미동을 지나 동쪽으로 가다 진조리 마을 표지판이 있으면 좌측으로 논길을 따라가면 나온다. 마을 앞에 있는 빨래터는 들판으로 흐르는 논둑 물을 사용하였는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3칸, 측면 1칸이다.

진조리(眞助里) 마을은 은평 마을 서쪽에 있는 마을로, 들판 가운데 약간 두툼한 곳이 있어 마을이 형성되었다. 진조리 마을 앞에는 버드나무가 몇 그루 있다.

대지 웃시암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대지길 18-10(덕진동 1가 78-5)

【축조시기】 근현대 【우물성격】 공동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70cm, 깊이 약 450cm, 지름 70cm



대지 마을은 본래 전주군 조촌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덕진으로 변했다. 덕진동에는 덕진공원과 조정단, 취향정, 순국학도현충탑 등이 있으며, 또 대지 마을 남쪽에는 전주동물원과 전주드림랜드가 있다.

대지 마을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아랫시암(우물)이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땅속에 묻혀 흔적만 남아 있다. 대지마을 웃시암은 웃동네 사람들이 먹는 물로 몇 가구가 사용했다. 지금은 수도파이프가 몇 개 박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 웃시암은 처음에는 돌로 쌓고 위에는 흙관을 묻어서 만들었고, 뚜껑은 손잡이를 2개 만들어 쉽게 들 수 있도록 하였다. 바로 옆에는 복숭아밭이 있고 바로 위쪽으로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대지 마을 서쪽에는 용수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는 조정단 재실이 있는 곳으로, 재실 안에는 창덕궁 툇말이 박혀 있다. 즉 창덕궁 툇말로 보아 이 지역은 창덕궁에 사는 고종이 관리하는 땅임을 알 수 있다.

장덕사(將德寺) 우물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송로 24-20(송천동 1가 160-11)

【축조시기】 조선 후기 【우물성격】 사찰우물

【형태】 원형 【규격】 높이 30cm, 깊이 112cm, 규격 100*100cm



장덕사 우물은 사찰 들어가는 오른쪽에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호스가 몇 개 외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중 하나는 아래 덕진공원(장덕사) 약수터로 연결되어 있다.

이 물은 찾는 사람이 많아 정기적으로 구청에서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으며, 검사표를 보니 합격증이 있어 마시기에 적합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장덕사라는 명칭은 장군봉(將軍峯) 아래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대한 불교일불선교종 소속 사찰로 대웅전과 많은 보살상 등이 있다.

장덕사는 물맛이 좋아 입구에는 건지산약천수(乾止山藥泉水)라는 돌표지판이 있으며, 주변에는 약사여래부처님과 서경보 스님의 홍상이 놓여 있다. 장덕사의 주봉인 장군봉에는 오래된 고인돌로 보이는 나합바위가 있다.